



# [리얼미터] 민주당32.5% >새누리당17.8% >국민의당15.3%

## 탄핵소추안 발의 혼선 빚어지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 동반하락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11월5주차(11월28일~12월2일) 정당지지율 조사결과 탄핵소추안 발의에 혼선이 빚어지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박근혜 대통령 4월 퇴진, 6월 대선 당론을 정한 새누리당은 9주 만에 반등했다고 5일 밝혔다.

매일경제·MBC '레이더P'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탄핵 추진 방식을 두고 당 안팎으로 혼선을 빚은 민주당이 32.5%를 기록하며 지난주 11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0.5%p 소폭 하락,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4월 퇴진·6월 대선' 당론 채택이 여론 성향의 지지층 일부를 결집하며 1.6%p 오른 17.8%를 기록, 지난 9월 4주차 이후 9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하며 국민의당을 제치고 한 주 만에 2위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2일 탄핵안 처리 반대 방침'과 일부 소속 의원들의 '박 대통령 제안 수용' 주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며 1.9%p 내린 15.3%를 기록, 지난 2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고 새누리당에

밀려 한 주 만에 다시 3위로 내려앉았다. 민주당과 '조기 탄핵' 공조를 이어갔던 정의당은 0.1%p만 등한 6.3%를 기록했다. 이어 기타 정당 0.9%p 오른 5.6%,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0.2%p 감소한 22.5%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29일(화)에는 30.9%로 하락하는 등 주초에는 내림세를 보였으나, '2일 탄핵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12월 1일(목)에는 34.0%까지 상승했다가,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2일(금)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으로는 충청권과 수도권, 5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내린 반면, 호남과 PK(부산·경남·울산), TK(대구·경북), 40대, 진보층에서는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울(민 32.5%, 與 17.7%, 國 16.7%), 경기·인천(민 34.3%, 與 16.4%, 國 14.8%), 충청권(민 33.2%, 與 18.6%, 國 12.0%), PK(민 29.8%, 與 20.8%, 國 12.3%), 호남(민 42.7%, 國 26.8%, 正 7.3%), 강원(민 31.1%, 與 19.7%, 國 17.1%), 제주(민 30.8%, 國 23.8%, 與

13.0%) 등 TK(與 28.0%, 民 21.2%, 國 9.0%)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선두를 유지했고, 특히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을 해당지역 오차범위(±6.0%p) 밖에서 앞서며 14주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던 29일(화)에는 15.8%로 전일 대비 1.7%p 반등했고, '4월 퇴진·6월 대선'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12월 1일(목)에도 18.7%로 오른 데 이어, 국회의 탄핵안 처리가 무산됐던 2일(금)에도 20.6%로 상승하며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20%대를 회복하는 등, 조사일 기준 4년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주간으로는 충청권과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30대, 보수층과 중도보수층 등 주로 여론 성향의 지지층에서는 상승한 반면, TK와 PK 등 핵심 지지 지역과 서울, 40대와 20대, 진보층과 중도층을 비롯한 아젠 성향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은 일부 의원들의 '박 대통령 임기단축·진퇴 국회일임 제안 수용' 주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던 30일(수)에는 14.7%로

하락하며 조사일 기준 4일 만에 처음으로 새누리당에 밀려 다시 3위로 내려앉았고, '2일 탄핵안 처리 불가 방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증폭되었던 12월 1일(목)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었던 2일(금)에도 각각 15.0%, 15.2%를 기록하며 약세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으로는 호남과 충청권, 수도권, 60대 이상과 30대, 40대 등 대부분의 연령층, 중도보수층과 보수층, 진보층 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일제히 하락했고, 특히 호남(與 26.8%, 民 42.7%)에서는 민주당에 해당지역 오차범위(±6.0%p) 밖에서 뒤지며 14주 연속 2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월)부터 2일(금)까지 5일간 전국 유권자 2,528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8%), 스마트폰앱(40%), 무선 집(27%)·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전체 11.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이다. 일간 표본오차는 3일간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정환기자



**아산시의회,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아산시의회(의장 오영만)는 제1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2017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8,595억원으로(일반회계 7,413억원, 특별회계 1,182억원) 편성됐으며, 그동안 전국체전으로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개선사업에 예산이 주로 반영됐다.

## 이종담 의원 “공직사회 업무시스템 유연하게 변화해야”

### 천안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김영란법 시대 맞게 변화 주문



천안시의회 이종담(불당 동, 쌍용 1·3동)의원이 5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영란법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전방위적으로 업무시스템에 전반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시민들도 이법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교육활동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천안시에 요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그동안 "불신에서 비롯된 각종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김영란법이 내포한 광범위한 행동 제약이 공직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조직은 "기쁨이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비판 받아왔다"며 특히 "시민이 제기한 정당한 민원에 대해 소극적 처리나,

민원인과의 대면 기피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천안시에 요청했다.

더불어 "시민들도 김영란법의 이해와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시민에 대한 홍보도 제안했다.

이종담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업무자세가 중요하다"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일도 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지양하고, 공직사회가 법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여 열린 마음으로 활기찬 사회적 분위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천안시에 당부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해소위, 소방차 노후율 제로화해야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6일 열린 소방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차 노후율 제로화 및 소방청사 내진보강 문제를 집중질했다.

조치연 위원(계룡)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소방공무원의 노후 개인장비 교체 예산이 전년대비 91억 4900만원이 증액됐다"며 "소방차 및 개인안전장비의 노후율 제로화 달성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은 "아산소방서 청사 이전 신축 등 8건의 사업이 이월됐다"며 "사업계획을 수

립할 때 소요기간을 자세히 검토해 사업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낙은 위원(논산)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소방청사가 도 소유 6개소, 시·군 소유 37개소인데, 편성된 예산은 2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내진보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이환 위원(서천)은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라며 "특별사법경찰 점검용품 및 수사장구, 증거기록 장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꼼꼼히 살펴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유진중 위원(부여)은 "소방정보화 기반 구축 및 현대화 사업인 119 소방현장 통합관리시스템 추진을 원활하게 진행해 달라"며 "무선통신 난지역역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은 "소방본부 예산은 지난해부터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세 특별회계가 설치되면서 일반회계와 구분해 편성됐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복기자

##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

### 민노총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원이 지난 5일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신현용)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코자 서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비정규직 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한 마음이 감사패에 담겨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기도 했다.

이연희 의원은 "앞으로도 그늘진 곳의 신음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찾아내어 미려하나마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참참이의 선거정보>

### 제12회 정확하고 신속한 투표지분류기



▶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 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함.

▶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선거마다 밥솥 등 장시간 개표와 개표사무원의 피로누적으로 인해 개표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투표지 분류를 기계장치로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 ▶ 개표기, 전자개표기, 투표지분류기는 동일한 기기인가요?  
언론 등에서 개표기, 전자개표기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투표지분류기'가 정확한 명칭입니다.
- ▶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하면 전자개표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개표방식은 수작업 개표이며,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를 보조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투표지분류기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집계하기 전에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역할을 합니다.
- ▶ 투표지분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나요?  
투표지분류기는 OCR(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을 적용하여 투표지에 찍힌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한 후 정상적으로 기표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무효 투표지와 기표 형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합니다.
- ▶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는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점에서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daejeontoday.com



**충남선관위 '나는 대한민국 새내기유권자다' 개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주시역고등학교 3학년 학생 650여명을 초청하여 올 바른 민주시민의식을 키우고 선거참여의 중요성을 체험·공감할 수 있는 '새내기 유권자 연수(나는 대한민국 새내기유권자다)'를 공주대학교 백재교육문화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마술사 최현우의 특강(주제: '관건을 넘어 꿈과 희망에 주문을 걸다'), 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의 문화공연, 선거상식 퀴즈게임, 새내기 유권자 선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충남도내 대기환경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 적용

### 도내 미세먼지 농도 전국평균인 51µg/m³ 보다 3µg/m³ 높게 측정...도민 건강불안

충남지역 대기환경기준이 국가 환경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6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3차 상임위 회의에서 도시사가 제출한 '도 환경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충남도는 '미세먼지 구름'에 드리워졌던 것이 사실이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에 노출된 탓이다.

농경현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미세먼지(PM-10) 월평균 농도가 47µg/m³, 세종은 45µg/m³, 충북의 경우 50µg/m³인 반면 충남도는 54µg/m³로 전국평균보다 무려 3µg/m³ 가 높게 측정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민들은 미세먼지라는 '침묵의 살인자'에 노출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를 국가환경기준보다 10µg/m³이 낮은 40µg/m³으로 기준을 바꾼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수치는 국가 환경기준인 25µg/m³보다 5µg/m³ 낮은 20µg/m³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한다.

이정복기자

충재표 의원은 "조례를 개정만 하고 실질적으로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환경 기준치를 강화한 만큼 배출허용기준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위치한 도가 국가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면 도민은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제주 5개 시·도의 경우 국가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이정복기자

## 황 총리 "국정여건 유동적...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

황교안 국무총리는 6일 "국정여건이 유동적이고 많은 어려움이 중첩돼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여건이 차질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경제정책의 공백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제당국에서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경제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재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한편,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과 각종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총리는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인프라 확대 공약과 OPEC의 감산합의로 유가 상승에 따른 산유국들의 발주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AI(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관련해 "농식품부와 행차 등 관련부처에서는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의 방역시스템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건설현황 · 공공건축물 특화사업 체험 방문 제도

# 전 세계 건축학도 끌어 모은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립된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우수한 디자인의 공공건축물과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체험하기 위한 대학생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6일 오전 9시 전북대학교 교수, 외국인 학생과 건축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행복도시 건설현황 및 공공건축물 특화사업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여행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전북대 학생 일행은 행복도시 건설 개념과 도시 전반에 대한 특화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행복도시 공동체 형성의 핵심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견학하였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행복도시 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다양한 모습들을 둘러봤다.

디자인 전공 학생들은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개념과 설계 공모 선정 작품의 건축시조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중국, 이집트, 모로코, 몽골 등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제2의 한강의 기적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집 옆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체육시설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세종시민이 부럽다"고 감탄하였다.

앞서 올해 4월에는 단국대 건축과 학생 61명, 5월에는 홍익대 건축과 학생 50명, 9월에는 한국건축

정책학회 회원 21명과 KDI 대학원생 105명, 11월에는 경북대 건축과 40여명과 연세대 여성건축가 30여명 등이 건축여행으로 행복도시 찾는 등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준연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 "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 친환경 요소 등 다양한 건축물 특화를 주도하며 新건축문화를 만들고 있다"면서 "행복도시 사업이 진행 될수록 도시 전체가 건축박물관이 되어, 세계인이 찾는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공동대응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달부터 문제가 있는 기사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 범위로 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사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 범위로 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영업 관련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정환 기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기·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톡톡'



대전 경제 통상 진흥원 (원장 이창구) 이 하 진 흥 원 · 사 진) 은 대전 지역의 경제 발전의

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며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첫째, 강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 강소기업 또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지원을 위한 유망중소기업 글로벌 지원사업과 시장중심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둘째, 기업성장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국내 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지원 등 대전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확대를 위해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들에게 맞춤

형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 창업 비즈니스를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넷째,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력관리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행복 버스 운영, 일취월장 123 청년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등 다양한 취업지원시책을 발굴·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진흥원은 중소기업 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션을 대전 중소기업 성장의 Hub화로 정하고 활기찬 대전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은 대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구축, 시민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창구 진흥원장은 "앞으로도 한결같은 자세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사업현장을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직접 들으며 동반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호 기자

## 대전 의료관광, 중국 잠재 신흥시장 교두보 확보

### 시, 정주시 오란미용병원 등 관내 의료기관과 협력계약체결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마케팅 공사와 충남대학교병원 등 5개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의료관광 잠재 신흥시장인 중국 정주 및 대련 지역 여행사, 병원장, 조선족 등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홍보설명회와 의료상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일(현지시간)에는 중국 정주시 오란의료 미용병원에서, 4일(현지시간)에는 대련시 선박역 호텔에서 현지 에이전시와 보협사, 의료 관계자를 비롯하여 조선족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대전의 첨단의료장비와 특화의료기술, 그리고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 미용 등 수술에 대해 프리젠테이션과 의료상담을 실시했다.

의료상담회에서 김철중 건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진료상담을 받은 대련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상철 씨(41세)는 백색 인성을 위해 윈스톱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기로 현장에서 사전 예약했다.

아울러, 3일과 5일(현지시간)에는 정주시 오란 미용병원과 대련시 중산병원을 방문하여 중국과 한국의 의료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양도시의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환자케어 협진을 비롯한 의료진 교환연수 프로그램 등을 협의했다.

이번 홍보단에 참가한 의료기

관은 시와 공동으로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학교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플러스성형외과, 보다안과 등 5개 병원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중 관계가 상 마그라프지 못한 상황에서 민간 병원 간 B2B 협력관계를 통해 중국인이 선호하는 성형과 미용, 그리고 조선족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정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등 대련의 첨단의료를 홍보하고, 중국 현지와 신뢰와 호응을 이끌어 내어 잠재 신흥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는 성과로 향후 중국환자 유치가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 충북권 지역통계 발전 협의체 토론회

### 충청통계청, 협력·확산 방안 논의



충청지방통계청(청장 진찬우)은 6일 충북 청주에서 충청북도 및 시군 통계담당자와 함께 지역통계 개발, 발전 및 확산을 위한

『충북권 지역통계 발전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16년도 충청지방통계청에서 지원한 단양군

노인실태조사, 충주시 특화작물조사, 영동군 취약계층통계 개발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소개하고 각 기관과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협력 및 확산 방안 논의했다.

또한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 통계의 정책 활용사례 모니터링, 충청북도 및 시군의 중점시책과 지역통계 연계 방안 및 작성 지원 방안 등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관한 충청통계청 지역통계과 김영수 과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2016년 개발한 지역통계와 활용사례 공유를 통해 지역통계 필요성과 개발에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충청권 지역 통계 허브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맞춤형 통계 개발 및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병배 기자

## 2016년 국가건강검진

#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 곧, 검진기관 예약이 마감됩니다.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
- 만 40세 이상 지역세대주, 직장비부양자
- 만 19세 ~ 만 39세 의료급여대상자
- 만 40세 ~ 만 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 1년 1회)

#### 알검진

- 위 알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 간 알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상·하반기 년회 주기)
- 대장알 (만 50세 이상, 1년 주기)
- 유방알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자궁경부알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주기)
- 검진주기가 2년인 경우, 출생 연도(목·출수)에 따라 실시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 만 40세와 만 64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

#### 구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또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충치와 심할(구강건강관리사업 등 심검, 치과검사, 치주 조직검사, 치면세균검사 등) 40세간

#### 영유아 건강검진

- 생후 4개월 ~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

● 동 정 ●

ETRI 업무협약 체결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7일 오전 10시 45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소프트웨어 교육활성화를 위한 한국전 자통신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행정도우미 지원봉사회 송년회



김경훈 대전시 의회 의장= 7일 오후 6시 프라도 뷔페에서 열리는 시 행정도우미 지원봉사회 송년회에 참석.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



박용갑 중구청장= 7일 오전 10시 중구모범운전자회 푸른쉼터에서 개최되는 '44분기 모범운전자회 근무상황점검 및 소양교육'에 참석.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장종태 서구청장= 7일 오후 1시 40분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허태정 유성구청장= 7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6 대전시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



박수범 대덕구청장= 7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자원봉사가족 한마음대회에 참석.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 평가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대전지방청은 식품제조업체들의 이물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2016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 평가회'를 7일(수) 푸기에서 개최한다.

평가회 주요 내용은 ▲이물관리 네트워크 활동사례 발표 ▲이물관리 규정 및 관리방안 설명 ▲애로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다.

이물관리 네트워크는 대전·충청 지역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5곳이 멘토 업체(5개사)와 멘티 업체(20개사)로 나뉘어 이물관리를 위한 노하우 등을 상호 공유하는 정보교류 협의체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식품제조업체들의 이물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 등 업계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 市 '2016 첨단국방산업전' 개최

## "민간기술 국방분야 참여 확대·신규전력 소요창출 기여... 생산적 행사 기대"

대전시(시장 권선택)와 육군교 육사령부, 국방기술품질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6 첨단국방산업전'이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이번 첨단국방산업전은 9일 까지 개최되며 미래 지상전력기회 심포지엄과 함께 전력의 극대화를 원하는 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91개 중소 벤처기업이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전시구역을 정보화력, 방호, 지휘통제, 작전지속지원, 신소재 등과 국방벤처기업, IT지원 사업 구역 등 군 업무와 관련 기

업군으로 권역을 구분 배치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 16개국 38명의 해외 바이어·무관들과 군·기관 관계자가 전시참관을 위해 방문했다.

육군교육사령관 장재환 중장은 개회사에서 "군이 전투형 강군과 미래 과학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첨단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이번 행사가 첨단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신규 전력 소요창출에 기여하는 유익하고 생산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송석두 행정부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융합은 시대적 사명이며, 첨단국방산업전이 융합의 성과를 전시장이고 신기술 개발에 전례 없는 기업들의 발표장이며 군에게는 우수 민간기술 발굴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회와 더불어 9개 병과학교가 참여하여 진행되는 '군 전투발전세미나', '군 활용성 간담회'가 동시에 열려 전시기간동안 많은 군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방문하게 되어 전시참가 기업들은 미래 전력 발전방향과 제품개발 및 판로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비즈니스와 네트워킹 기회를 갖게 된다.

이영호 기자



## 우리들공원 문화예술공연 메카 부상

중구, 올해 101회 4만 7000여명 관람... 공연장소로 각광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대흥동 우리들공원의 무대공연 시설이 완비되면서 많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호응을 받으며 문화예술공연의 메카로 떠올랐다고 6일 밝혔다.

매주 금요일과 토·일요일을 중심으로 열린 문화공연에서는 행사 관계자를 비롯한 관람객 470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져 윈도심의 낭만과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대흥동 문화의 거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곳에서는 올해 2월부터 12월 초까지 대전시민연극 페스티벌, 대전대학 연합 락 페스티벌, 우리들 가요제, 대흥독립만세, 문화가 있는 날, 패션쇼, K-POP 우리들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공연이 101회 개최됐다.

한편 우리들공원 완공 이후, 우리들공원 및 주변 재창조사업이 '2012년 익사이팅 대전 윈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지난해 12월에 주변 지역과 소 통하는 도심광장으로 조성되면서

공연장소로 각광받아 왔다.

현재 우리들공원은 대형 무대 시설(25×9.2M)과 빔 프로젝터, 출연자 대기실 및 소품실, 음향 및 조명 분수시설 등 각종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우리들공원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들공원 공연장 대관을 희망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606-6287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 중앙시장 전통중앙도매상가 LED투광기 설치

동구, 106개 설치공사... 이용고객 편의·만족도 높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중앙시장 전통중앙도매상가 아케이드에 최근 설치된 LED투광기 등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 구는 전통중앙도매상가 아케이드 내부가 비가 오거나 흐린 날다 소 어두웠던 상황을 개선해 보다

밝아진 쇼핑환경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지난달 4일부터 아케이드 천장에 LED투광기 106개 설치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말 준공한 바 있다.

또 시각적 불거리로서 색다른 즐거움이 될 LED바 1420조, 스톱플 183개도 함께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충신 경제과장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LED투광기 등 설치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상당한 편의가 기대되며, 아울러 LED바 등 늘어난 불거리와 함께 정과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에 더욱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고집했다.

이영호 기자

## 서구,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선포식 개최

## 출산장려 국민 참여 유도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지부(회장 최미자)주관의 이날 행사에는 장종태 서구청장을 비롯해 주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회 이 날 선포식은 "건강하고 새로

운 가족 문화 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제3기 출범과 함께 출산장려를 위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임신·출산·양육 환경개선은 국가와 사회는 물론 주민 모두가 책임지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임을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미자 서구지부장은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제3기 출범과 선포식을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뀔 수 있는 기쁨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가통계 포털 출생통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OECD 3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대전 서구는 1.22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 대비 0.01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성구,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결실

## 취약계층 후원 '산타발대식'

대전 유성구가 취약계층 아동과 구민들의 절실하지만 이루지 못한 작은 소망을 들어주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가 결실을 맺었다.

구는 6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에 선정된 가구에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와 區지역사회보장협의체, 區행정복지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비롯 구의원, 국회의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회원, 행정복지 워크 회원, 복지시설 종사자, 기부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허태정 유성구청장과 주관단체 회원, 후원자 등 60여명이 산타가 되는 발대식

을 개최하고, 2인 1조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당초 30세대 1500만원의 지원금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목표액을 초과한 2910만원이 모금돼, 당일 30가구의 소원을 전달하고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16가구의 소원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를 함께 한 여러 후원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목표보다 더 많은 구민들의 소원을 나누게 되어 기쁘다"며, "작은 사랑이 모여 큰 기적이 될 수 있는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한신교회,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 기탁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한신교회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주일예배에 앞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에 이웃돕기성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대전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김경기 단장, 한신교회 김석인 담임목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안기호 회장, 권흥주 중구 단장, 대전시장에인단체총연합회 황영자 회장)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심포지엄

## 충남대병원, 든든한 건강지킴이 역할



충남대학교병원(원장 송민호) 노인보건의료센터 5층 대강당에서 지난 1일 오후 충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충남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서 주관했으며, 송민호 충남대병원원장의 축사, 충남대병원 이민아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을지대병원 오관영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자궁목 무력증의 처치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와 조기진통 산모의 처치 (충남대병원 산부인과 강병현 교수)를 주제로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통계로 보는 CNUH NICU (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용욱 전임의)를 주제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진료통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송병배 기자

## 대덕구, '12월 안전점검의 날' 맞아

##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6일 '12월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대덕구 지역 자율방재단과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재난취약시설인 신탄진동 남경마을 석축 등 급경사지 4개소를 방문하여 안전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상서교 아래 제설차재정도 방문하여 제설재 관리상태도 점검하였다.

또한 점검이 끝난 후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과 폭설에 대비한 눈 치우기, 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신고하는 안전신문고앱 홍보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윤태희 부구청장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폭설이 내리는 겨울철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내 집 눈치 우기 운동에 다 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KT&G 자원봉사로 '국무총리 표창'

## 신탄진공장,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수상... 지역사회 위한 다양한 활동 앞장

KT&G(대표 백복인)의 신탄진공장이 12월 5일 자원 봉사자의 날을 맞아 열린 '2016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경북 경주시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성철 행정자치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수상 기관 임직원들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KT&G 신탄진공장 임직원 700여명은 사내 22개의 봉사단을 자체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 왔다. 무엇보다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 이상의 봉사단에 참여해 한마음으로 활동한 점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펼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KT&G 신탄진공장 임직원들은 2003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정을 매월 한 집씩 선정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



해주고 화장실과 전기시설 등을 보수 해주는 '사랑 에(愛)집수리' 활동을 펼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장애인·노인 시설에 김장김치, 쌀, 월동용품 등 전달하는 활동을 14년째 이어왔다.

이 밖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지금까지 총 480명에게 5억 7천만원을 지원했으며, 홀몸어르신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목욕봉사도 8년째 꾸준히 해오고 있다.

조종철 KT&G 신탄진공장장은 "KT&G는 신탄진공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상생투게더 봉사단을 조직해 한 해 2만 시간에 가까운 봉사활동을 수행해왔다"며, "여기에 복지재단과 장학재단을 별도로 설립,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펼치는 등 기업 경영이념 중 하나인 '함께하는 기업'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선기자



한국농어촌공사천안지부, 내고향 물해설가 강의 개최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부(지부장 차상철)은 만물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5일 유소용 물해설가를 초청하여 일일강의를 실시했다.



### 2016년산 벼 보급종 신청하세요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오는 23일까지 2017년 봄 파종할 벼 보급종을 신청 받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할 벼 보급종은 모두 7품종 134톤으로 삼광, 새누리, 미품, 대보, 윤광, 주청, 동진찰 등이며, 공급가격은 2017년 1월 중으로 추후 고지할 예정이다.

정부 보급종은 소독처리 한 종자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농업경영체가 친환경 재배 등을 목적으로 종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미소독품종으로 신청해야 한다.

올해 산 보급종은 수확기 전 잦은 강우와 고온다습한 기후로 수박아가 발생해 당초 공급량의 약 79%만 확보했으며, 황금누리 등 일부품종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 공급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벼 보급종 공급량이 당초계획보다 부족하므로 적정 파종량을 준수해 특정한 모 키우기를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품종 특성 및 재배방법 등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 충청우정청 우체국 우수고객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행사 열려



충청지방우정청(청장 이승재)은 지난 5일 ICC호텔에서 우체국 우수고객을 초청,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위한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각 우체국에서 추천한 우수고객들과 자선단체 직원들을 포함해 약 210명이 참여했다.

1부 행사는 예금영업팀장의 우체국

소개를 시작으로 "저금리시대의 행복한 자산관리"라는 주제로 외부강사의 특강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냈다.

저녁 만찬과 함께 시작된 2부 행사에서는 행복나눔 물품 기증식과 초청가수 김세환, 정훈희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가 열려 갑자기 추워진 초겨울에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행복나눔 물품 기증식은 대전시자원봉사회 주관으로 누구보다 추운 겨울을 보낼 저소득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우체국 및 우수고객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 및 우수고객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의류, 신발, 각종 생활용품 등 총 200여점을 기증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직원들과 함께 참여한 이승재 청장은 "경제가 어려워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과 복지 안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아산시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캠페인

아산시는 지난 5일, 제249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겨울철 공사 중인 아산시 풍기동 1차 EG the1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결빙으로 인한 전도사고와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 안전점검 및 캠페인을 가지며 근로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아산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아산시 안문협 산업안전분과 위원들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공사 중 각종 사고(추락, 붕괴, 화재·질식 등)가 발생할 수 있는 위

험요소 제거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했으며, 안전점검 사항으로는 비계 설치 상태, 가설 승강로 상태, 작업발판 상태, 갈판 사용으로 인한 화재·질식상태 등 재해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중점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산시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아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 바르게살기 운동아산시협의회, 아산시 자율방재단, 아산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아산시 안전문화운동주진협의회, 천리안건설 현장 근로자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충청남도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 우수상

공주시, 지난해 이어 우수기관 선정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충남도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 확대와 선별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 2016년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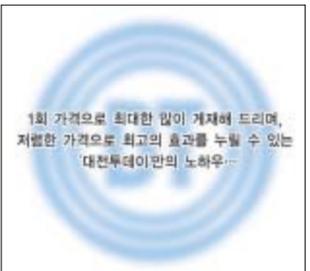
재활용가능자원 경진대회는 유리병류·종이팩 및 발포합성수지 회수 확대와 선별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종이팩·발포합성수지 및 유리병류를 대상으로 올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선별 및 홍보 등의 실적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올해 종이팩·휴지 교환 캠페인, 자원순환센터 현장견학 및 체험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자원순환센터에 발포스티렌 감용기를 설치·운영한 결과, 종이팩은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약 38%, 발포스티렌은 지난해 대비 수거율이 약 28% 상승했다고 밝혔다.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 이우천 팀장은 "이번 결과는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가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고 재활용 자원의 실효과를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상범기자



### 노란우산공제 영세사업자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500만원(현행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

회안전망 역할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유지,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번 개정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인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빈번

한 상황에서,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는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되지 못한다는 저소득 소상공인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득 4천만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기존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들의 공제 가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송병배기자

**고유가 시대**  
**이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절약

# 단국대, 2016 동북아 신기술 산학포럼

러시아 첨단기술 협력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찾는다



단국대가 세계적인 저성장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가 도약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찾고자 '2016 동북아 신기술 산학포럼'을 개최했다.

단국대학교 총장 장호성은 6일 천안캠퍼스 국제회의장에서 '2016 동북아 신기술 산학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는 '러시아 의학 및 농업분야의 바이오 기술과 드론'으로 러시아 첨단기술 세계화를 위해 조직된 회사인 '가리니 테크놀로지스(Garini Technologies, 아시아 총괄대표 정상욱)'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포럼에는 양 기관 석학들을 비롯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주한러시아대사관, 한국무역협회(KOITA)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생명과학, 드론, 농업 등의 신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은 러시아의 최신 과학기술과 제품에 대한 주제별 발표로 진행됐다. 원격 혈액 검진 키트 'RLD 키트', 기존 MRI 장비가 해상하기 힘든 폐 관련 질병까지도 선명하게 이미징화 시켜주는 과분극화 MRI 'XENON', 러시아의 우주항공 관련 특수가스를 이용해 장시간 운행을 가능하게 만든 차세대 드론 등 최신 기술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는 가리니 테크놀로지스 최고기술경영자인 드미트리 미하일로프(Dmitry Mikhailov) 박사, 러시아 국립민자력대학교의 드미트리 루빈(Dmitry Rubin) 박사, 국립모스크바대학 화학연구소 세르게이 콘다코프(Sergey Kondakov) 박사와 유리 크루티야코프(Yuri Krutyakov) 소장 등 기술 열연 연구 개발한 석학들이 직접 나섰다. 천안=김정환기자

# 고기능 무인기 3년간 5000억 투입

2000억 공공시장 창출...에너지 시설 관리·산불 감시 등

정부가 향후 3년간 고기능 무인기 기술 개발을 위해 5000억원을 투입하고, 2000억원 이상의 무인기 공공시장을 창출한다.

주요한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무인기 관련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무인기는 대표적 융합 신산업으로 여타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막대한 연료 서비스 산업을 창출할 것"이라며 "무인기를 전략적으로 산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타깃 분야인 고기능 무인기 기술개발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민간 공동으로 5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장시간 비행, 약전력 극복, 충돌 회피 같은 핵심 기술은 군과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산학연 융합연구 방식으로 개발한다.

재난 대응, 과학 영농 등 특수 무인기 분야는 각 부처와 함께 공동 개발한다.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같이 잠재력이 큰 분야도 선형연구 지원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3년간 2000억원 이상의 공공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설 관리, 산불 감시 등 다양화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발굴해 나갈다.

이와 함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전력선 감시, 농약 방제, 물품 배송 분야는 이미 실증사업을 실시 중으로 향후 무인기 활용 도시관리 등 적용 분야를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선기자

# '食사랑 농사랑 체험교실' 실시

탄동농협, 어린이 식생활개선 체험 교육 프로그램



탄동농협(조합장 이병열)은 6일 서구 우명동에 위치한 우명동 전통떡마을에서 하계동 새누리 유치원생 3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개선 체험 교육 프로그램인 '食사랑 농사랑 체험교실'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마사 전통떡 전수자, 요리전문가가 송편 위에 꽃모양을 만들어 올리는 송송편 만들기와 직접 떡메치기를 한 인절미 만들기, 각종 채소를 이용한

주먹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직접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병열 조합장은 "요즘 도시에 생활하면서 농촌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체험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체험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 올 한해 복지허브화 가장 잘한 지자체는?

## 전북 익산·충남 홍성·대구 달서 등 '2016년 복지행정상' 대상 수상

전북 익산시, 충남 홍성군, 대구 달서구, 강원 동해시, 경남 창원군, 광주 서구가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복지행정상' 대상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허브화 사업에서 성과를 낸 지방자치단체 57개(시도 3곳, 시군구 54곳)를 선정해 6일 '2016년 복지행정상'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복지허브화란 행정업무 중심이었던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역복지의 중심이 돼 어려운 주민들을 직접 발굴, 공적 지원과 민간자원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각 주민센터는 '맞춤형복지팀'을 설치, 기존 복지업무와 별개로 방문상담, 사례 관리, 사각지대발굴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충남 홍성군은 인력이 부족한 농촌지역임에도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인사·조직부서의 협조로 읍면동의 복지담당인력을 크게 늘려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다.

또 복지공무원 뿐 아니라 복지기관, 드림스타트 등 유관기관에도 자책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역량교육과 인일중등 관리교육을 제공하는

등 지역 내 복지전문성 확충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남 창원군은 요양보호사, 상수도 점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형서비스 기관 27개소가 협력해 서비스 정보를 공유하고 매월 2회씩 공동 방문하는 '가치데이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수급자·장애인, 6세 이상 전입자 등 대상자 유형별로 특화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하는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광역 단위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해 노력한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최우수), 광주광역시, 경기

도(이상 우수)가 선정됐다.

아울러 광명시, 아산시, 진천군, 수영구, 성북구, 세종시, 속초시, 서천군, 중랑구, 성동구 등 10개 지역이 최우수, 남양주시, 거창군, 광안구 등 38개 지역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진영 복지부 장관은 "올해 복지허브화 사업은 목표치 933개를 뛰어넘어 현재 980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2100곳 추진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구 단체장과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대전시, 베트남 호치민 종합박람회 '수출 호조'

수출계약 35만 달러, MOU 70만 달러, 구매상담 1857만 달러 달성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 종합박람회에 참가, 수출계약 2건 35만 달러, MOU 3건 70만 달러, 수출 구매상담 90건 1,857만 달러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20개국 540여 개 사가 참가했으며 시는 지역유망 중소기업 8개 기업이 참가 집단 제품과 기술력을 선 보였다. 특히 이번 전시회

를 통해 (주)에그텍은 베트남 코이팜(KHOI FARM)사와 계란고속선별기 설치, 판매를 위한 수출계약 24만 달러를 성사시켰다. 베트남의 경우 기구단위 소규모 양계에서 규모화 되어 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계란고속선별기 시장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목재 성형가공 및 코팅자동화시스템 전문회사인 (주)한나이엔지는 박람회 기간 동안 베트남 Y&T사와 11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바이어로부터 신기술로 주목받아 초청 제의를 받아 연내 방문을 약속했다.

교육용 로봇 장난감 등 완구류 제조업체인 (주)웹텍과 공기 살균, 탈취, 정화용 풍사에 수행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 제조업체인 (주)퓨어시스는 전시품목 전량 판매와 함께 현지 기업인 코베카비즈(KOVEKA Biz)사, 에프에스티씨(FSTC)사 등과 70만 달러 상당의 제품구입 의사를 확인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 고체황도 방향제 생산기업인 (주)내추럴앤미는 중국 전기건조 옷장생산업체인 호치자사와 상호 구매 약속을 하는 등 제품홍보와 구매상담도 활발히 이뤄졌다. 대전시는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에 대해 대전공공관 부소입차, 바이어 매칭, 물품 및 통역 지원 등을 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관에는 해외바이어 및 현지인 등 1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영호기자

# '친환경성분 포함한 물티슈 함침액 관련 특허출원 급증'

특허청,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은 2006년 3건, 2007년 6건, 2008년 3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에 11건이 출원된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이상 특허가 출원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총 31건이 출원되었는데, 이중 친환경 물질을 사용한 특허출원이 1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티슈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최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유아용, 피부세정용, 주거환경 세척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부직

포로 만든 건티슈 다발에 각종 성분이 포함된 용액을 함침시켜 용기에 포장하고 필요에 따라 꺼내 쓸 수 있도록 제작된다.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은 제조방법, 제조장치, 포장방법, 포장장치, 절첩방식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주로 함침액의 성분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물티슈의 함침액에는 일반적으로 정제수에 보습제나 향료와 같이 목적에 따른 기능성 성분이 포함되는데, 티슈가 젖은 상태로 장기간 보관될 수 있도록 살균소독제와 방부제를 필수적으로 첨가하고 있다.

최근 물티슈 관련 특허출원에서는 함침액의 필수 성분인 소독제와 방부제를 친환경 성분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물티슈 함침액 관련 특허출원 중 친환경 천연물질을 포함하는 건수는 36건으로 전체 성분관련 출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출원되고 있는 친환경 물티슈는 정제수로는 온천수, 약수, 해양심층수 등을 사용하고, 첨가물로는 속, 자소엽, 계피, 박하 등의 각종 천연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여 보습 효과를 유지하면서 피부자극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박봉원기자

# 한밭대 총동문회, 2016 친선 동문의 밤 개최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일 더 오페라웨딩에서 열려

2017년 개교90주년을 맞는 한밭대학교 총동문회(회장 김만규)가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6년 한밭대 친선 동문의 밤'을 12월 9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더 오페라웨딩(대전 탄방동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송하영 총장 및 강용식, 염홍철, 설동호 명예총장과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에서 한밭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들에 대한 자랑스런 한밭인 상 시상, 공포패 전달과 학과별, 직장별로 펼쳐지는 화합과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동문의 밤을 주관하는 김만규 총동문회장은 '사이버 동문회 활성화, 동문기업 네트워크 구축, 단위동문회 활성화' 등 젊고 역동적인 동문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로 7

만 8천여 동문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한밭대 총동문회의 꿈을 향한 전환점에서 재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예정인 '자랑스런 한밭인 상'은 ▲교육부 김명수(한밭대 교수) ▲과학기술부 나병철(대성전기 대표이사) ▲지역개발부 신성호(대전시 도시주택과장) ▲지역경제개발부 송치영(대전시 경제과학국장) ▲연문장담부 류호진(씨커뮤니케이션 대표) ▲사회공헌부 박용갑(중구청장), 신현식(아름다운세상회장) ▲산학협력부 송명기(신화엔지니어링 사장), 신윤섭(윤성이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두희(금성백주주력 연구이사), 조명연(계룡건설산업 상무이사) 동문이 영예의 자랑스런 한밭인 상을 수상한다. 이정복기자

세계산림총회! 2021년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1년 개최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유엔식량농업기구 주관)' 유치에 성공했다. 아·태 지역에서 '세계산림총회'가 개최되는 것은 1978년 이후 40여년 만이다.

산림청과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5차 FAO(유엔식량농업기구) 이사회'에서 이사회 컨센서스로 지지를 받아 세계산림총회 개최지로 서울이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유엔 3대 환경협약 중 유엔사막화방지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뿐 아니라, 산림·환경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세계산림총회까지 유치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2021년 서울에서 개최될 세계산림총회를 통해 우리의 산림녹화 성공 경험을 세계에 알리고 산림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원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의 할인, 최대의 도매,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품질을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 캠페인 프로모션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로 29-2 대정빌딩 12층

www.daejeontoday.com

# 충남 공무원 정책논문 '전국 1·2·3위'

제12회 정책연구 경진대회...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휩쓸어

충남 내 공무원들이 '제12회 정책연구 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을 휩쓸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책연구 경진대회는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 우수 정책과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공직사회 내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국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 중이다.

올해 전국에서 제출된 35편의 연구논문 중 논산시 가야곡면에서 근무 중인 심우주 주무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 상담실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논문이 영예의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했다.

또 서산시 향남물류과 운영준팀장의 '환황해권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개선 방안' 논문은 최우수상(행정자치부장관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 산업경제과에 근무 중인 최민석 주무관의 '공공기관 고객 무례 행동이 감성 노동과 감성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논문이 우수상(지방행정연구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수상한 연구보고서는 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lbgodi.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부정소년지원사업

# 우수기관, 우수멘토 장관표창 2관왕 선정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최원열)은 지난 1일 제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2016 학교부정소년 지원사업 시상식 및 워크숍'에서 학교부정소년 지원사업 우수기관, 우수멘토 장관표창 2관왕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백석대학교청소년학과와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 '뽕내래'를 중점 사업으로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율체육활동 ▲역사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신하 멘토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4학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부정소년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학교부정소년 지원사업 우수멘토 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원열 센터장은 "우수기관표창을 받기까지 고생해준 센터 선생님들과 관련 연계 기관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본 센터는 앞으로도 학교부정소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 차량용 블랙박스, 주요성능 꼼꼼히 따져보아야

## 소비자의 관심 높지만... 관련 제품 대한 객관적인 품질 정보 부족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후 불합리한 과실상정이나 뺑소니와 같이 인적·재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필수적인 자동차용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성능 개선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높지만, 관련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원경표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1개 업체, 11종의 제품을 대상으로 영상품질(변환관 식별성능, 시야각), 동영상 저장성능(저장속도, 메모리 사용량, 녹화안정성) 등 주요 품질시험과 내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영상품질인 변환관 식

별성능, 시야각과 동영상 저장성능인 저장속도, 메모리 사용량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부 제품이 변환관 식별성능, 시야각에서 KS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화안정성과 저온·고온 내구성, 과전압 견딤에서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지만, 진동 및 충격 내구성 시험에서 각각 3개 제품, 7개 제품이 KS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박스 녹화영상의 해상도 수준을 나타내는 변환관 식별성능을 확인한 결과, 유라이브알바트로스 4 MD-9400P, 아이로드(T10), 큐비아(R935), 아이나비(QXD950 View), 만도(KP100) 등 5개 제품은 주요 품질시험과 내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영상품질인 변환관 식

SCR-K4(F), 코원(오토캡슐 AN2) 등 2개 제품은 전방 야간에서 KS기준 해상도 278 line 이상에 미달하는 등 특히 야간에서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후방 녹화 영상에 대한 시야각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전방 시야각은 수평이 최대 15배(77~116°), 수직은 1.4배(43~60°), 후방 시야각은 수평이 최대 1.7배(67~113°), 수직은 1.6배(38~61°) 차이가 있었으며, 다본다시크릿 SCR-K40F, 코원(오토캡슐 AN2), 폰터스(SB300) 등 3개 제품은 전방 시야각에서 KS기준(수평 80°, 수직 50°) 이상에 미달하였다.

저장속도(FPS)는 제품별로 전방이 최대 15배(20~30fps), 후방은 2배(15~30fps) 차이가 났고, 메모리 사용량은 주행녹화 시 최대 3.2배(65~207 MB/분), 주차녹화 시 최대

5.9배(38~223 MB/분) 차이가 있었지만, 주행 중 녹화영상의 미녹화 및 오류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녹화안정성에서는 전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진동 및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한 결과, 진동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저치대가 파손되었고, 충격 시험에서는 7개 제품이 후방 카메라 고장 또는 시험 중 본체와 거치대가 분리되어 KS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를 확인한 결과, 최소 2.4Wh에서 최대 5.8Wh로 제품별로 최대 2.4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 자체 보유기능과 별도 옵션 구매를 통한 지원기능이 다양한 만큼 구매 전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

### 보령서, 상가털이 절도 피의자검거

보령경찰서(서장 김호승)는, 새벽시간 모자와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영업을 마친 식당, 약국 등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B씨(56세, 남)를 검거,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2015. 12. 27. 새벽 보령시 동대동 소재 C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과 금품이 들어 있는 금고와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생시간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동선을 파악, 지난달 28. 새벽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한 피의자를 잠복근무 중 검거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식당 시정되지 않은 창문과 현관문을 훔쳐 들어온 것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입검사의 문단속을 당부하였다. 양성민기자



금산소방서, 전통시장 화재예방 합동 캠페인 실시



공주췌,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펼쳐



아산췌, 테니스동호인과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충남대병원-2016년 제3차 고객행복위원회 개최



공주소방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

##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 공조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 공동 대응 나서

세종특별자치시 5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다. 세종시청,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서 등 5개 공공기관이 이따부터 문제가 있는 기사와 언론사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과 광고·협찬 등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현재 출입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를 중단하고, 광고·협찬·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도 그만두기로 했다. 해당 기사가 근무하는 소속 언론사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세종=김정환기자

## 금성백조, 공주시 내홍2리와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분위기 조성 위해 협력키로



(주)금성백조주맥 정성욱 회장이 지난 2일(금), 공주시 계룡면 내홍2리를 방문하여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 협약식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내홍2리 원승태 이장을 비롯하여 이은주 새마을지도자, 김정인 새마을부녀회장 등 주민 40여명과 금성백조주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기를 다짐했다.

1사 1촌 자매결연 기업이 소재한 주변 지역의 농어촌 마을과 함께하는 상생분위기 확산과 FTA 협정 및 해외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소재 기업과 마을이 공존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시작했다.

1사 1촌 자매결연 협약서에는 기업과 마을의 지속적 교류와 관

계 형성의 의지가 담겨져 있고, 이 소중한 인연을 시작으로 서로에게 도움 되는 활기차고 자율적인 교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내용 등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정성욱 회장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농촌의 현실속에서도 농촌과 농업을 뜻깊이 지키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린다."며 "저희 금성백조에서도 오늘 자매결연을 통해 농촌 일손돕기에 앞장서는 물론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도농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상생발전을 하는데 작은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성백조주맥은 1사1촌 자매결연 이외에도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길 수 있도록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사랑의 온도탑"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막식에서 7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였으며, 세종시청에 인재육성장학기금 2,0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김태성기자



##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 '총력'

청양소방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예정 등

청양소방서(서장 류석윤)는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청양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대책 총력을 내놨다.

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 기간 동안 화재취약요인 제거를 위해 시장 내 점포(주막)에 대해 점진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보일러 소화기를 보급할 예정이며, 호스릴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해 점포주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이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소방관서장이 직접 출동하는 등 현장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시간 예방성찰과 경계활동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화재예방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구 재래시장 화재를 보며 대형화재 발생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청양에서는 단 한건의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 대전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지속적 감소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중·고·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12만8091명을 대상으로 2016년 4월부터 조사 참여시까지의 학교폭력 관련 경험·인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실태조사 대상자의 93.4%인 119,670명이 응답한 결과 대전의 피해응답률은 0.60%(전국 0.8%)로 전년 동차 대비 0.19%p 감소하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행된 이후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학생들이 중복 응답한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도 전년 동차 대비 모든 유형에서 감소하였으며,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 신체폭행, 스토킹, 사이버 혹은 휴대전화 등을 통한 괴롭힘, 금품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 경험도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0.3%로 전년 동차 대비 0.1%p 감소했다. 목격 경험도 있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도 2.0%로 전년 동차대비 0.3%p 감소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중심 '친구사랑 3운동' 전개, '어깨동무학교', '어울림프로젝트'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등의 사업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분석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수립과 학부모·교원 역량강화,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및 체험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 아산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기간 도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홍보 적극 나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근)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

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아산소방서는 의무설치기간이 도래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확인 문화조성 ▲관련 주요소방대상물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 ▲전광판과 미디어 보드를 활용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 영상물 송출 ▲인문매

체, SNS 등 각종 매체 활용 ▲ 지속적인 가두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으로 시민들에게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득근 아산소방서장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아직 구비하지 않은 세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산=리량주기자

## 보훈복지문화대학 대전캠퍼스 졸업식

6일 오전 11시, 고품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응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전지부가 운영하는 '제5회 보훈복지문화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윤명호) 졸업식'이 6일 오전 11시 대전복지회관에서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윤진 대전보훈청장, 조현목 대전보훈병원장, 대천·충남보훈단체장 및 보훈단체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예품 전시, 난타 공연 등 식전행사와 개식선언, 국민의례, 기념사, 축사 등의 분행사로 진행됐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은 상이군경



# “김영란법 이후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느껴”

## <사람인>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 (50%), ‘중견기업’ (40.5%), ‘중소기업’ (26.9%) 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취업계를 낸 졸업예정자의 출석을 시험이나 레포트로 대체해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되게 됐다. 이에 실제로 기업 10곳 중 3곳은 법 시행 이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졸업예정자 채용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29.3%가 ‘부담이 생

겼다’라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50%), ‘중견기업’(40.5%), ‘중소기업’(26.9%)의 순으로 부담된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 기존에 졸업예정자를 채용했던 기업(86개사) 중 54.7%는 향후 졸업예정자를 채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신입 채용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신입을 채용한 기업은 202개사였다. 이들 중 법을

우려해 자격요건에서 졸업예정자에 대한 요건을 새로 만든 기업은 21.8%였다. 구체적으로는 ‘자격요건에 졸업자만 명시’(54.5%, 복수응답)하거나 ‘특정 입사일 맞춤 수 있는 자로 명시’(47.7%)하고 있었다.

또, 이들 기업 중 8.9%는 채용 평가시 졸업예정자인 것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지원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종합격자 중 졸업예정자가 있었던 기업(91개사)에게 재학 중인 지원

자를 위한 취업계 처리 방법을 묻자 과반수 이상인 65.9%가 ‘학교에서 취업계를 인정’ 받았다고 답했으나, ‘회사에서 입사일을 조정’(18.7%)해 주거나 ‘취업계를 인정 못 받아 입사를 포기’(7.7%)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법 시행 후 아직 신입 채용을 하지 않은 기업(133개사) 중 105%는 졸업예정자 선발시 입사일 조정 등이 부담돼 채용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복기자

#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평가회

충남도교육청, 분과별로 대회 운영 전반 대한 평가회 가져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5일부터 6일까지 부여롯데리조트에서 교육부 및 국립특수교육원,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시·도 담당자 평가회를 가졌다.

이번 평가회는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담당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회는 대회 운영보고를 시작으로 대회 운영 관련 동영상 시청 후 분과별로 대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특히 분과별 평가는 청각장애분과, 시각장애분과, 지체장애(특수학교)분과, 지체장애(특수학급분과)로 나뉘

어 시·도교육청 대표 교사들이 모여 대회 종목을부터 평가기준, 참가인원 및 방법, 차기대회 운영 방향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고 현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백옥희 유아특수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에서 장애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맘 풀리며 노력한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경쟁보다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는 대회로 운영됐다. 오늘 분과별 토의를 통해 제안된 내용이 차기대회 운영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대회를 준비하고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끔 끝까지 수고해주신 참가자와 대회 관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내포=전용식기자



**보령 개화초, 아산 이순신빙상장, 온양민속박물관 체험** 지난 6일 오전 8시부터 16시 30분까지 겨울행복 창의학교 주관을 맞아 빙상체험 및 민속박물관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이번 체험학습은 교실 밖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고, 겨울 스포츠 체험과 전통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 대산고, 전국 학교예술교육 최우수 학교 선정

교육부 주관 2016학년도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서산 대산고(교장 서미숙)가 교육부 주관 2016학년도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최우수 학교로 선정돼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대산고 [1美] 고운 소릿길(聽覺)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인 1악기 프로그램(전교생 색소폰 연주), 학생 오케스트라와 뮤지컬등 개발을 지원 했다.

그리고 [2美] 고운 눈길(視覺) 프로젝

트를 실시해 심미안을 가꾸는 학교 갤러리, 자연의 향기를 담은 교정 가꾸기와 음악과 시가 흐르는 해우소, 미술·미용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 지원했다.

[3美] 고운 마음길(心性) 만들기기를 위해 사제동행 연주회, 경로효친 사랑 나누기 음악회, 지역사회 찾아가는 연주회 등 다양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대전시교육청, 전부문 수상하는 쾌거 이뤄

대전광역시 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교육부 주최로 개최된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 부문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 번 공모전에서 다문화 인식개선(UCC, 포스터)과 다문화 실천사례(교육자료, 교육수기) 전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대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쾌거라고 할 수 있다.

UCC 부문에서 대전어초 남예지 학생이 최우수상을, 포스터 부문에서 대전정립중학교 최은서 학생이 우수상을 차지하였다. 교육수기 부문에서는 대덕중 이현아 한국어강사가 최우수상을, 대덕초 알렌산더 이해 헬프란 학생이 우수상을, 교육자료 부문에서 대전흥통초 김도연 교

사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 달라서 더 즐거운 학교”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실천사례 부문 외에 다문화인식개선(UCC, 포스터) 부문을 신설하여 진행되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지역심사를 통과한 작품 중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49편이 최종 선정됐다.

대전교육청은 그동안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다문화교육 정책 지원을 확대하였고,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및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및 적응 지원, 맞춤형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으로 다문화교육의 질을 높여왔고, 그 우수성과가 타시도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대전 다문화교육의 위상을 꾸준히 높여왔다.

김정환기자

# 2016 교사의 내면 세우는 수업코칭 워크숍

부여교육지원청, 2016 하반기 행복지원장학의 일환 실시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훈)은 6일 2016 하반기 행복지원장학의 일환으로 교사의 내면을 세우는 수업코칭 워크숍을 실시했다. 관내 초등학교 교원 30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학교현장의 수업성찰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특강의 주요 목적은, 교사들의 수업에 대한 자기성찰 및 집단성장의 수업코칭 기회로 수평적 협의문화 개선에 있다. 가장 큰 특징은 3단계의 수업코칭 프로세스(수업코칭 이론-실습중심 워크숍-심화과정 원격연수)를 통해 현장적용의 안착

을 우선으로 했다.

이번 교사의 내면을 세우는 수업코칭은 1차 수업코칭의 이론 특강은 어세스타 부설심리평가연구소 김은주 소장을 초청하여 수업코칭의 기본스킬 및 단계별 역할수행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김은주 소장은 수업자가 스스로 수업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 및 내면적 성숙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수업친구 만들기, 지적이 아닌 코칭의 방향으로 나가기, 체계화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한 자기 성찰의 기회제공방법 등을 강조했다.

# 세종시 학교폭력 피해 지속적 감소 추세

관내 학생들 대상...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와 가해·목격 응답률 모두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조사대상 학생의 94.8%인 1만 9,91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조사 대상의 1.1%인 212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42명(1.8%), 중학생 48명(0.7%), 고등학생 22명(0.5%)로 조사됐다.

2015년 2차 1.3%, 2016년 1차 1.2%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3.0%로 가장 높았고 집단따돌림(18.9%), 신체폭행(11.6%), 스토킹(10.6%), 사이버 괴롭힘(10.0%)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간은 쉬는 시간(46.2%), 하교시간 이후(13.7%), 점심시간(9.0%)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목격 응답은 각각 72명(0.4%), 74명(3.8%)으로 조사됐다. 가해 응답률은 지난 2015년 2차 대비 0.1%포인트 줄었고, 목격 응답률은 0.4%포인트 감소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유관기관과 교육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학교폭력 대응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이라며, “신규교사·책임교사 등 직위별 연수 운영을 통하여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이정복기자

# 논산 도산초,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도산초등학교(교장 유정하)는 5일 셋째반에서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예방 꿈기 자랑 발표 및 겨울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1학년 2반 학생들과 담임은 신나는 음악에 맞춰 단체 맨스를 보여주었는데 무대 위에서 친구들과는 맞출을 하며 동작을 맞추고 웃으면서 즐기는 모습이였다.

한편 겨울철 빙판 및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안전담당 교사 서명원이 실시하였는데 교통안전예방 및 등

상 예방법, 외출시 주의사항, 눈 치우기 등을 교육하였다.

감기로 인한 보건실 환자 증가로 교장선생님은 손씻기와 보온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였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한 행복도산 가을 아침운동 D리그를 마무리하며 피구, 축구 등 학급별 수상팀과 MVP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고 11월 학급 반장 임명장 전달도 실시하였다.

논산=김태선기자

# 독서문화공동체운동, 당진시 종합우승

제36회 충청남도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개최



제36회 충청남도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이 6일 오전 11시 당진시새마을회관에서 시상식에서 수상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새마을문고충청남도지부(회장 김진수)가 주관한 이날 시상식에서 독서문화운동 종합평가 부문은 새마을문고당진지부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새마을문고공주시지부와 새마을문고서산시지부가, 독후감 부문에서는 서산시 부춘초등학교 6학년 김아라 학생을 비롯한 7명이 최우수에 입상해 충청남도지사상을 받는 등 모두 41명이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문화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독서회원 확충 및 찾아가는 문학이야기와 신간도서 보급, 독서환경 조성사업, 상설 도서교환시장, 피서지 문고 운영 등 주민 친화사업, 독서문화

기행, 독서동아리 운영, 독서 골든벨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민간 자율로 추진된 2016년 독서문화운동 종합평가와 도내 초·중·고 학생을 비롯한 범도민 독후감 공모를 통해 부문별 경진을 실시해 도민 책 읽기 운동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에 일조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공모한 독후감은 도내 142개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일반부와 독서동아리 분야에서 모두 2500여 편이 응모됐다.

김진수 회장은 “요즘 청소년들은 휴대폰과 컴퓨터 게임 등에 지나치게 몰입해 독서하는 습관을 잃어가는 등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앞으로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통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NAVER** 들어보세요! 네이버스토리

“대전투데이”를 검색하세요.

● 통 정 ●●

2016 바른살실천대회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 7일 오후 2시 30분 홍익 대학 국제연수원에서 개최되는 2016 바른살실천대회에 참석.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윤석우 충남도 의회의장 = 7일 오후 2시 30분 아산 시민체육관에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6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

쌀산업 혁신방안 토론회



허승욱 충남도정무부지사 = 7일 오전 9시 30분에 리솜스파캐슬 라벤더홀에서 열리는 쌀산업 혁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오후 2시에 아산시 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자원봉사자 해단식 및 2016 자원봉사자 대회에 참석.

건강한 100세 노인체육과정 진행

충남도는 6일 보령 웨스트피아에서 '충남 4S(전문·장애·생활·학교 스포츠) 정책아카데미·건강한 100세, 노인체육 과정'을 개최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이날 정책 아카데미는 충남체육진흥협회와 체육단체, 회원종목 단체, 어르신 체육지도자, 도내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강, 우수사례 발표,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정책아카데미에서는 먼저 한국실버스포츠협회장인 이희선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생활체육교육학과 교수가 '노인의 신체구조와 운동의 효과'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이어 아산시체육회 허영신 생활체육지도 사령관과 아산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사령관, 서천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사령관 등 기관별 우수사례 발표가 열렸다.

이와 함께 생활체육 전문강사인 박미선 씨가 '웃음광장 실버 웰빙운동교실' 특강을 진행했으며, 이윤찬 충남체육진흥협회 회장 위원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허승욱 도정무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민 건강은 행복한 충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체육은 가장 중요한 보건정책이자 복지정책"이라며 "앞으로 도 노인은 물론, 도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체육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4S 정책아카데미는 도가 체육 자생력 강화와 상생 발전 모색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으로, 각 분야에서 중점 주제를 선정해 발표 및 토론을 갖고 있다.

김정환 기자

미래 인구·복지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

충남도, 2046년까지 도내 연도별·시·군별·남녀별·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계 가능

충남도의 미래 인구와 복지 서비스 수요 변화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도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장재 인구변화 예측

역 통계 개발' 원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안희정 지사와 이상훈 ETRI 원

장, 양 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보고회는 '장래 인구-복지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범 적용 결과 발표 및 시·군, 시·군별 고도화 등 향후 연구개발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장래 인구-복지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도와 ETRI가 지난해 11월 체결한 '빅데이터 기반 소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됐다.

도가 복지 예산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ETRI가 빅데이터 예측 분석 기법인 '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2010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2046년까지 30년 동안의 도내 연도별, 시·군별, 남녀별, 연령대별 인구 변화 추계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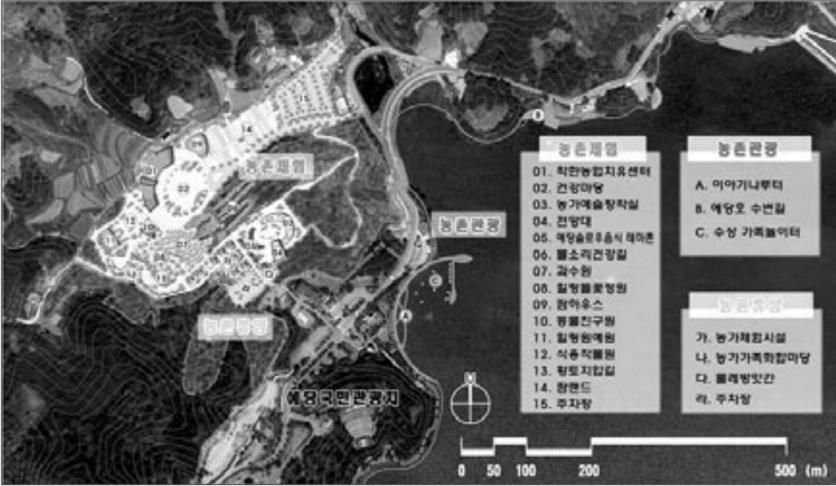
또 전국 및 충남 인구 성장률, 노동인구, 유소년과 노령 인구 변화도 예측할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 교육 상태, 직업, 시·도 및 시·군별 인구이동 변화도 살펴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와 함께 인구 추계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복지, 노인 일자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사업별 수급자 및 예산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이와 함께 인구 추계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복지, 노인 일자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등 사업별 수급자 및 예산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한동원 ETRI SW본부장 연구소장은 "지난 2013년 미래부 사업으로 시작된 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번 충남도 시범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 분야 확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예당호 사업비 455억 원 확정

한농업치유센터·팜하우스·팜랜드 등 내년부터 본격 추진

예산군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17년 정부예산에 민선 6기 최대 현안 사업인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 세상 사업'을 반영시켰다고 6일 밝혔다.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 세상 사업'은 응봉면 후사리 일원 13만9천㎡에 착한농업치유센터와 팜하우스, 팜랜드, 농가체험시설 등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 세상 사업'은 서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 중 거점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당초 사업비가 552억 원이 투자되는 정부의 광역 관광개발 계획으로 정부예산안에는 2년간 반영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친 군의 노력으로 2017년도 국회예산 심사에서 최종 455억 원의 사업비

가 확보돼 군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을 하게 됐다.

군은 2017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정부부처와 협의하고 지난 7월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으며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기재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사업에 대해 적극 알리며 예산 증액에 힘써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국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기재부 적격심사에서 당당히 통과하는 등 군이 그동안 제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은 결과이며 정부 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에 걸친 군의 노력으로 2017년도 국회예산 심사에서 최종 455억 원의 사업비

특히 이번 국비 확보는 군과 충

남도 그리고 홍남표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삼일위원회가 돼 확보한 것으로 그 의미와 함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그동안 잠재력만 가지고 있었던 예당호 개발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예당호 뿐만 아니라 덕산온천 휴양마을 조성 등 충청 유교 문화권 개발 등 다양한 정책 방향 실현이 가능해 과학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복지 분야를 시작으로 시스템 적용 분야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원 ETRI SW본부장 연구소장은 "지난 2013년 미래부 사업으로 시작된 인구 동태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기술을 이번 충남도 시범 사업에 성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공공 분야 확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양성민기자



필리핀 알프레도 베니테즈 의원 등 하원의원 대표단

행복도시 성공요인 벤치마킹 방문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이하 행복도시) 성공사례 필리핀에서 배우려 왔습니다."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도시건설 성공사례를 본따기(벤치마킹) 위해 필리핀 알프레도 베니테즈 의원 등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5일 행복도시를 방문했다고 6일 밝혔다.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수도 계획위원회 구성' 법안을 발의한 베니테즈 의원(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의원과 의원사무원 직원 등 대표단 11명은 이날 행복도시 건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부청

사·KDI국제정책대학원·국립세종도서관 등 현장견학과 자유토론 등의 일정을 수행하며 행복도시의 성공요인을 살펴보았다.

필리핀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수도권 마닐라에 거주하여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부족, 도시 슬럼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새로운 입지에 정부를 이전하여 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에서

필리핀 입법부가 행정수도 건설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복도시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배경, 관련법 제정, 추진기관 설치 등 행복도시 건설 초기 과정에 대해 심도

있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도시방문보다 큰 의미를 지닌다.

대표단은 행복도시 사업의 결정부터 착수, 도시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강력한 추진의지와 빠른 도시성장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도시 계획수립 및 건설 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고 싶고, 필리핀 행정수도 건설과정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종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가 도시건설의 성공사례로 외국에까지 인식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도시건설 모델 수출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서, "세계인이 부러워하고 배우러 찾아오는 세계 최고의 명품도시 건설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세종시 아름동 '금연거리' 운영

12개 기관·단체 협약·보행자전용도로 350m지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종재)가 '금연거리'를 조성한다.

세종시는 6일 아름동 북쪽커뮤니티센터에서 아름동자율방범대, 범죄기마을 임주지대표회의, 범죄기마을 노인회, 아름초·중·고교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동 금연거리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12개 기관은 아름동 금연거리의 질서 확립, 청결한 환경유지, 금연실천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담배연기 없는 세종' 등 금연문화 확산을 위한 정보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시는 관내 최초로 아름동 범죄기마을 7.8km지 앞 보행자 전용도로(350m)를 17일부터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중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종재 시장은 "금연거리의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12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행복도시, 친환경 에너지특화도시 건설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세계적 녹색 모범도시로 비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 이하 행복청)은 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브리핑실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세계적 녹색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특화도시 건설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친환경 에너지특화도시 개념을 도출하고 행복도시 내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5% 확대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77% 감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특히,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활용한 행복도시 1단계(15년까지) 실적산출 결과, 도심 곳곳의 녹지 확보와 수목식재 등을 통해 온실가스는 도시 전체에 상배출량의 43.5%를 감축하였고, 신재생에너지는 15.4%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녹색도시임을 입증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가목표는 온실가스는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1%를 도입

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리체계(tool)를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에너지소비량 등에 기반하여 연도별 이행실적을 산출하고, 계획 대비 실적분석 및 예상실적 산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목표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행복청은 이번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비율 목표(15%→25%)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73%→77%) 상향을 위한 다양한 녹색정책 수단을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도시(그린시티) 조성 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석 행복청 기반시설국장은 "과거 1611에 따라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면서 "행복도시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친환경 도시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타 도시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삼교읍 할머니경로당 준공

예산군, 워터·공동체 생활의 중심지로 활용



예산군은 6일 마을 어르신들의 여가와 문화공간인 삼교읍 창정리 할머니경로당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삼교읍 창정리 남·녀노인회(대표 유영업·이종예) 주관으로 열린 이날 준공식은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권국상 군의회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축사 ▲현판식 ▲경로당 라운딩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삼교읍 창정리 경로당은 그동안 노인들의 여가 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에 들어가 새로 완공됐다. 이번 준공된 창정리 경로당은 1억6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대지면적 388㎡, 건축면적 5994㎡, 지상 1층 규모로 거실 겸 주방과 방, 화장실 등을 갖춘 쾌적한 여가 공간을 자랑한다.

군은 이번에 건립된 경로당이 주민들 화합의 장소이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뿐만 아니라 여가와 복지, 문화의 산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선봉 군수는 축사에서 "새로 준공된 경로당이 앞으로 어르신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고 마을의 대소사가 논의되는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내 집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주 방문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양성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동정

자원봉사자 해단식



북기왕 아산시장은 7일 오후 2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에 참석.

감사의 밤 행사



김홍장 당진시장 = 7일 오후 5시 30분 당진시노인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당진시 노인 복지관 2016년 자원봉사자·후원자 감사의 밤행사에 참석.

자원봉사자 해단식



오인영 아산시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30분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양대 체전 자원봉사자 해단식에 참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준용 당진시의장은 7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당진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참석.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한상기 태안군수는 7일 오후 2시 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

협약식



이석화 청양군수는 7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2017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시행 체결 협약식에 참석.

온양6동이웃사랑성금집중모금성황

아산시 온양6동(동장 김완겸)은 지난 2일,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서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이웃사랑 성금 집중모금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캠페인은 온양6동 통장협의회, 남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적십자 봉사회, 행복키움추진단 등 협력단체와 지역의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특히, 관내 온주어린이집(읍내동 소재)과 온새미어린이집(좌부동 소재) 등 어린이 1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아 정성스럽게 모은 성금을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하여 참여자와 관계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김완겸 동장은 "여러분이 보내준 작은 기부가 따뜻한 사랑이 되어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는 온양6동 주민센터 복지팀(041-537-3318)으로 문의하면 되며, 성금 모금액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데 뜻깊게 쓰여 집 계획이다.

아산시 양대체전 평가보고회 열려

부서별 습득 한 노하우·개선방안 대규모 행사 시 참고 할 수 있는 지침서 만들 예정

아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97회 전국체전 및 제36회 전국장애인체전을 개최하면서 이룬 성과와 아쉬운 점 등 함께 공유하는 평가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부서별로 양대체전을 개최하면서 직접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주요 추진내용, 추진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담 및 수범사례 위주로 보고하면서 함께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대체전의 성과로는 친절한 자원봉사자 활동, 원활한 교통 및 주차대책, 유관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 등



을 뽑았으며, 아쉬운 점으로는 표준 매뉴얼 부재로 체계적인 행사 준비

가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보고회 자료는 양대체전을 개최하면서 부서별로 습득한 노하우와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하여 향후 대규모 행사 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로 만들 예정이다.

북기왕 아산시장은 "양대체전 개최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양대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모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7년 5월 개최 예정인 전국장애학생체전 및 전국소년체전 성공개최 준비에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아산=리량주기자

태안소방서 축사 화재예방 당부

태안소방서(서장 김오식)가 최근 겨울 한파가 몰아치면서 겨울철 축사화재에 대한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축사화재의 경우 대부분 가족의 보안을 위해 축사를 막아두는데 이는 축사 내부 습도 상승으로 전기누전의 위험성을 높이고, 전기와 전기배선, 전열기구, 내부 열악한 환경, 관리 부주의로 발생도가 빈번한 실정이다.

축사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주의를 요구하는데 ▲육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한 개의 콘센트에 많은 배선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고 ▲노후화된 개폐기, 차단기는 즉시 교체 ▲퓨즈나 과전류 차단기는 정격용량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비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소화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고압배선이나 소화장비는 습기나 직사광선을 피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태안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축사 화재는 농가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미미하며 점검하여 화재 예방해야 한다."고 전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청양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청양군(군수 이석화)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변화하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능력 함양과 활발한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양군 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지역브랜드 전략교육 ▲공직자 기본윤리·소양교육 ▲조직화합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군수님과의

대화의 시간 등 공직자의 창의적 능력 배양과 조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 이석화 군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앞서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학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 청양, 넘버원 청양을 위해 공직자가 솔선수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양=정상범기자



2016년 청양군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아산시 음식문화·주방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

아산시가 작년에 음식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여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주방개선 분야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음식문화 분야는 충청남도지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산시가 음식문화 및 주방개선 분야에서 이루어낸 성과로는 올해에 개최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편안한 잠자리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여 식품사고 없는 축제를 지원

한 것이 주요인이었다.

두 번째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주방개방과 위생모 착용운동, 잔반음식 한곳에 모으기, 나트륨 줄이기 음식 제공하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범운영, 클린주방 설치, 안전한 음식식재공하기 등 다방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개방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방문 선수단

들에게 특색 있는 먹거리(온공탕)를 발굴 보급해 선수단에게 건강하고 든든한 식사를 제공해 온공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점과 온양6동 음식점 집중추진운동에 '온주 맛고를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여 외식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한 점 등이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개방 평가에서도 타 지역보다 선진행정을 펼친 결과로 나타났다.

남효숙 위생담당관은 "아산시의 음식문화 및 주방개방사업은 그 어느 해 보다 바쁜 일정에도 전 직원

이 열과 정성을 쏟은 결과"라며 "이 영광을 직원에게 돌리고 싶다. 우리시는 이외에도 모든 시장평가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내어 타부서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위생부서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는 음식문화 및 주방개선 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계속적으로 선정되기까지 영업주 및 관련단체 등과 소통으로 민·관이 협약체결을 맺고 실천하여 타 지역에서도 선진 견학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우리/동/네

해나루쌀로 만든 빵 맛·영양 만점

당진농기센터, 쌀가루 활용한 쌀빵 만들기 교육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우리쌀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 2회에 걸쳐 우리음식연구원 24명을 대상으로 우리쌀 활용 쌀빵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당진의 대표 농산물인 해나루쌀을 활용해 초보자도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고구마머핀과 치즈모닝빵, 미니박식빵, 카스테라 등 4종류의 쌀빵을 직접 만드는 실습이 진행됐다.

쌀빵은 밀가루에 익숙지 않은 사람도 소화하기 쉽고 밥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어 기존 밀가루 빵보다 간편하게 한 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쌀 소비촉진을 위해 쌀 가공기술 보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쌀로 만든 빵을 직접 만들어 드셔서 쌀 소비 촉진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우리쌀 소비 촉진 일환으로 지난 7월 15일 지역 내 학생 900여 명에게 당진 해나루쌀과 지역특산물인 단호박으로 만든 단호박쌀빵을 나눠주며 우리 쌀의 우수성을 홍보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독거노인 공동 생활제' 운영 활발

화산경로당, 외로움 해소·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장평면(면장 송석규)은 관내 화산경로당노인회장(곽춘근)을 활용해 독거노인들에게 공동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사업이 홀로 사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돕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경로당을 활용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독거노인들 중 희망자를 한 곳에 모아 생활하게 하는 제도로 생활안정, 외로움해소, 응급상황 시 신속대응, 각종안전사고예방, 난방비 부담완화 등의 상당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자신의 집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생활은 이곳에서 하게 되며 관리자를 지정해 노인들의 안위 돌봄은 물론, 야간 긴급사태 발생 시에 공동 생활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있다.

곽춘근 노인회장은 "그동안 실시해온 공동생활제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해소되고 있어 취약노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송석규 면장은 "최근 독거노인이 거주하다가 사망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발견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노인 분들께서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고 있어 복지수요의 다양화 추세에 발맞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양=정상범기자

아산시보건소 기관표창 5관왕

응급의료체계 구축위협사업 등 적극 추진 공로

아산시보건소가 2016년도 기관표창 5관왕 수상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번 2016년 12월 8일 열리는 응급의료전진대회에서 응급의료사업 유공기관 표창 대상자로 아산시보건소가 선정됨으로써 ▲장기종료 문화 활성화 유공 ▲생물테라피대응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상장비분야 ▲한약약간증진사업 우수사례 장관표창 ▲지역사회 통합간증진사업 최우수상에 이어 올 한해 다섯 번째 기관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올해로 12회째 맞는 응급의료전진대회는 한 해 동안 응급의료체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응급의료분야 전문종사자, 관계기관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아산시 보건소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게 됐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건강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기관표창 5관왕 수상이라는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SNS 웹툰 공모전 정진웅 씨 금손으로 선정

당진시, 해나루쌀 주제, 작화력·스토리구성 뛰어어나

당진시가 올해 처음 개최했던 SNS 웹툰 공모전에 총 48편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당진으로 가는 길'을 출품한 정진웅(24세, 전주시)씨가 최고의 금손으로 선정됐다.

금손작 '당진으로 가는 길'은 주인공 해배달이 사과를 구입하기 위해 마트에 들렀다가 해나루쌀을 소개 받고 맛에 감탄하는 줄거리에 덧붙여 해나루 브랜드 온라인 마켓인 '당진핀과 당진시의 농업정책인

3농혁신을 함께 소개한 작품으로, 작화력과 스토리구성, 작품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은손 작품은 스토리 완성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엄 모(34세, 남양주시)씨의 '해나루 2인자'가 선정됐다. 동은 작품은 좌화부분에서 완성도가 높았던 '해돋이 축제'를 출품한 김모 양(18세, 광주시)의 '해나루 축제'가 뽑혔다.

또한 입선작에는 이모(25세, 서

울시)씨의 '당진행'과 이모(23세, 홍천군)씨의 '사과의 왕'이 선정됐다.

금손부터 입선작까지 입선작품 5점은 오는 9일까지 당진시 공식 SNS채널(블로그, 카카오톡스토리, 페이스북)에 차례대로 공개되고 있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디오니소스와 파인애플송을 패러디한 웹툰을 선보이며 SNS 상에서 커다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진=최근수기자



우리/동네

# 자살예방사업 우수 기관 선정

부여군보건소 충남도 기관표창 · 포상금 1500만원 수상

부여군보건소는 충청남도가 주최하는 2016년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도지사 기관표창과 포상금 1,500만원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지난 2월 보령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자살예방사업 평가회에서 부여군보건소는 2016년 10월 현재 자살사망자가 13명으로 나타나 지난해 10월 25명에 비해 자살률이 48%나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이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도가 38개 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지자체 자살예방사업을 점검한 이번 평가회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마련했다.

부여군보건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11개 지역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자살예방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자살 시도자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연계 추진, 지역 인적 자원 활용을 통한 생명사랑지킴이 운영, 멘토링 사업,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등을 추진해 자살을 예방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다른 연령에 비하여 높은 자살률을 보였던 노인들의 자살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주 수요일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 독거어르신 우울 전수조사, 독거어르신 대상 생명존중 프로그램 하하호호 행복교실 등을 운영하여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자살을 예방했다.

이장환 보건소장은 "2015년 충청남도 정신보건사업 기관표창에 이어 이번에 자살예방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말 기쁘다"며 "하나의 기관이 잘해서 수상한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업체하여 이러한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자살사망자 zero, 마음튼튼, 가족행복, 건강한 부여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어린이 위한 '만화 지방세' 발간

계룡시, 어린이 눈높이로 쉽고 재미있게 제작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세돌이 세순이가 함께 떠나는 지방세 여행'이라는 만화로 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지방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해 흥미 있고 어린이들이 지방세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밝혔다.

부록에는 지방세 구제제도 및 월별·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등 일반적인 사항도 함께 실어 매일 납부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이와 함께 초등학생들의 교육교재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PDF 파일로 제작해 '계룡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도서관, 각급 초등학교, 면·동 민원실 등에 총 100부를 배부해 지방세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에게 세금의 역할과 중요성 등 지방세를 제대로 알림으로서 어린이들이 성실납세의 의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룡에 대한 애착심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올해 겨울철 안전문화운동 전개

논산시,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예방 홍보활동 전개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겨울철을 맞아 지난 2일 논산시의 버스터미널, 논산역, 일원에서 안전문화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논산시, 안전관리지원단,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단체 소속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겨울철 각종 사고예방을 주제로 ▲난방기 안전수칙 ▲겨울철 화재예방 ▲폭설·설해 등 대비 시설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화재와 폭설,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철저한 예방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논산=이길규기자

# 천안시 청수도서관 건립 기공식 열려

8번째 공공도서관으로 탄생 남부권 시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천안시 남부권에 또 하나의 공공도서관 건립된다.

천안시는 6일 청수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천안시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부상한 남부권에 8번째 공공도서관인 '청수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했다.

동남구 청수동 355번지에 건립되는 청수도서관 건립공사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남부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지역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하게 됐다.

기존의 신방도서관과 더불어 도시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청수도서관은 영어전문도서관을 연계하여 운영되는 도서관으로, 1층 어린이자료실, 2층 영어자료실, 3층 종합자료실 등을 배치한다.

도서관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4



층, 연면적 6,263.4㎡로 총공사비는 약 144억원이 투입되며, 이날 기공식과 함께 공사에 착공하여 1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개관목표를 추진하게 된다.

집의 콘텐츠를 확보하여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도서관 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겪던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와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영어를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어서적 및 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체험실, 이야기방 등을 갖추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에 기여하게 된다.

구본영 시장은 "그동안 도서관 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독서활동 기회는 물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거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미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천안=김정환기자

# 달달쫄쫄 양촌꽃감 유혹이 시작된다

양촌리 체육공원서 10일~11일 달콤한 꽃감의 향연

2016 양촌꽃감축제가 '감빛 물든 그리움 정이 물처럼 흐른 햇빛촌'을 주제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논산시 양촌면 양촌리 체육공원에서 따스한 막을 올린다.

양촌꽃감축제는 풍부한 일조량과 신선한 북서풍, 높은 일교차의 자연조건과 과일로 만들어지는 양촌꽃감을 홍보하고, 양촌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다.

올해 1회를 맞아 총4개 분야 27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양촌꽃감 축제장을 찾으면 감갈기 짜기, 감 짜기 체험 등 겨울추위를 뚝뚝 따갈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아울러 감와인, 감초초 시음회, 꽃감차시음회 등 감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식행사를 마련해 고향의 훈훈함과 정을 선사한다.

축제 첫날인 10일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범공연, 풍류도 힐링콘서트, 황산풍장놀이 등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개막식을 개최하고 박성철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이 펼쳐진다.

11일에는 외국인근로자 노래자랑, 퓨전난타, 제3회 청소년 맨스경연대회, 인디고스톤, 각설이 공연, 제7회 꽃감가요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겨움을 더할 예정이다.

또 꽃감농장에서 정성 들여 말린 명품꽃감과 청정 햇빛촌에서 재배



한 딸기, 곶취, 머위, 상추 등 지역의 농특산물도 함께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문갑래 양촌꽃감축제 추진위원장은 "양촌꽃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해마다 늘어 겨울철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것

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양촌꽃감축제를 맞이해 논산시페이스북에서 '양촌꽃감축제 개최기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페이지에 꽃감소녀가 털고 있는 감에 쓰여진 글자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양촌꽃감을 증정한다.

논산=이길규기자

# 계룡시 문화재 활용사업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우리 문화의 우수성 홍보 힘써... 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



계룡시(시장 최홍목)가 2년 연속 문화재 활용사업의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은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높이고 자 문화재를 친숙하게 즐길 수 있

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우수사업 지자체로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 이번 사업은 올해 전국 104개 지자체가 마지막까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을 한 결과 7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 되어 더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올해 광산군씨 문헌공파 영선재 종중 주관 아래 '유유자적 사계고택 체험'이라는 주제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을 운영했다.

영산홍과 철쭉이 활짝 피는 5월 사계고택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사생대회, 계룡산 일대를 탐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천하대길지 계룡시

## 통정

### 체육인의 밤



구본영 천안시장= 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차세대 자동차 부품산업육성 포럼'에 참석하고 오후 7시 세종웨딩홀에서 열리는 '2016년 천안시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논산시의회 시장연설



황명선 논산시장= 7일 오전 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제186차 논산시의회 시장연설에 참석.

자율방범대장이 · 취임식



최홍목 계룡시장= 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오후 6시 30분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자율방범대장이 · 취임식 참석.

체육인의 밤 행사



노박래 서천군수= 7일 오전 10시 군청 회의실에서 열리는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최종보고회에 참석, 오후 11시 한산유림리조트에서 열리는 2016 한산향교 기로연에 참석, 오후 4시 30분 아름다운웨딩홀에서 열리는 서천군 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

농업대학 졸업식



이우용 부여군수= 7일 오전 10시 30분 부여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리는 굿뜨래 농업대학 졸업식에 참석.



부여시설관리공단 '사랑의 헌혈' 캠페인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양태)는 지난 5일 부여군청 앞마당에서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캠페인에는 부여군청·시설관리공단 직원 및 군민 등 15명이 동참했으며, 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의 헌혈 증서를 공단지체적으로 적립하여 헌혈증이 필요한 부여군민에게 직접 기부할 계획이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사회 공헌활동 중 하나로 2014년부터 대한적십자사 헌혈 캠페인에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김양태 이사장은 "수혈이 필요한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헌혈 캠페인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며, "공단은 사회적 나눔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다양한 사회활동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 서천군 전국 최초 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료'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시범 시행한 어업분야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했던 외국인 근로자 20명이 성과를 거두고 6일 출국했다. 군과 자매결연한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길구에서 거주하는 20명(남자 11, 여자 9)은 3개월간 단기 취업(C-4)비자 발급을 받고 체류자격을 얻어 9월초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5일까지 3개월간 20여가에서 멸치건조와 선별작업에 참여하여 어가에게는 부족한 일손 해소,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계절근로에 참여한 앙크질기르(여, 53세)씨는 "그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가족과 같이 대접준 고용주 분들께 감사함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계절근로 사업이 시행되면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석 서천군 지역경제과장은 "본 사업 도입과 기간연장, 업종확대 등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 단기간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로 중앙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어업분야로는 이번이 서천군이 유일하게 시범 운영을 했다.

서천=김태선기자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대동빌딩 7층

동정

행복한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



오시덕 공주시장은 7일 오전 11시 중회의실에서 행복한 동행 시장과의 만남의 날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희망 2017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행사에 참석.

하이트맥주 장학금 전달식



김동일 보령시장은 7일 오전 10시 시장실에서 열리는 하이트맥주 장학금 전달식,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보령버섯 특구지정 설명회, 오후 6시 30분 웨스트피아에서 열리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

충남지방통계청 청사 준공식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은 7일 오전 11시 서산시 석림동 793-3번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충남지방통계청 서산시사무소 청사 준공식에 참석.

기록물관리 전직원 연수



조민행 보령 교육장은 7일 오전 10시 보령교육지원청 제1회의실에서 실시되는 2016 기록물관리 전직원 연수에 참석, 오후 1시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2016년도 12월 월간 업무 협의회에 참석.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 보령시 2016 최종 보고회 거처

보령시가 대학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술력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6년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최종 보고회를 지난 5일 코리아힐(주)과 ㈜에스앤씨에서 순회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술개발 심의위원장(지역경제과장) 등 7명과 관련 기업체 대표가 참석해 연구위탁을 받은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그동안의 기술개발 추진경과와 성과를 듣고 개발제품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사업결과를 평가했다.

시는 연초 사업대상자를 공모해 코리아힐(주)과 ㈜에스앤씨 2개소를 선정했고, 지난 4월 과제선정 심의를 거친 후 지부당 포함 사업비 4000만 원을 투입해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 4명의 연구원이 7개월여 만에 기술개발 지원을 완료했고, 지난 11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리아힐(주)은 대형스틸휠(40kg) 도장 이동 작업 시,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한 기계장치 개발로 안전사고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효율성 향상에 의한 원가절감을 에스앤씨(주)의 하수 슬러지 이송효율을 높이기 위한 분리형 이송펌프 가압장치는 슬러지의 흡입 및 토출이 원활해져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동일 시장은 "산·학·관 협력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신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 자동화기반 구축 등 기업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과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보령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학·관 협력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자금지원 등으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 기업의 생산성 개선으로 제품의 수준향상과 수익증대, 비용절감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4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서산시, 건축·건설정책 분야 전국 우수기관 입증

민원 만족도 향상·청렴 건축정책 추진

서산시가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건축·건설정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탁월한 행정능력을 입증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충청남도도는 '2016 건설행정건설화' 우수기관과 '충남건축·공공디자인문화제' 유공기관에 서산시를 뽑았다.

충청남도도는 ▲민원만족도 제고 ▲안전한 건축공간 조성 ▲건축문화 저변확대 추진 ▲업무능력 배양 등 4개 항목, 17개 지표의 건축행정 전반에 걸쳐 평가했다.

시는 행정편의적 입지지원 폐지 등 시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건축정책을 추진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충남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를 유치하고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인 건축과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시는 지난 10월 대한민국 도시대상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2016 건설정책분야 종합평가' 우수기관에도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청남도도는 ▲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도시계획 ▲특정지역 개발 ▲성장촉진지구 개발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시는 지역계획 분야에서 ▲도시

계획위원회의 운영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등 합리적인 도시행정 수행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들이 유쾌한 주거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생활인프라 확충과 건전한 건축·건설행정을 펼쳐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동절기 민방위 비상급수대 급수시간 조정

보령시, 죽정급수대 등 9개소 급수관·급수대 등 동파예방



이에 따라 죽정급수대(06:00-06:30, 15:00-15:30)와 한내·명천급수대(06:00-06:30, 17:00-17:30)는 24시간에서 1일 2회로 제한하며, 두릉·장동급수대(07:00-07:30, 18:00-18:30), 성연·성주·어항급수대(09:00-09:30, 15:00-15:30)는 기존과 같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2년 만의 대가뭄으로 식수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민방위 비상급수대를 적절히 활용, 유용하게 사용했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1회 수질검사 실시 등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의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에서는 비상급수시설을 월 1회 이상 모터펌프 작동, 시설물 점검 및 부대시설 작동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령=김태성기자

전하게 관리하고자 급수시간을 조정할 것이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비상시,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긴급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다.



제8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 성료

따뜻한 나눔 실천 앞장

금산군이 후원하고 금산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양현환)가 주관한 제8회 금산군 자원봉사자 대회에 금산다락원 생명의 집 대공영장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유관 기관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자원봉사자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 및 봉사단체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에서는 제36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 그동안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 46명의 자원봉사자와 13개 자원봉사단체가 표창장을 받았다. 이어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자원봉사단체들의 장기지킴이로 화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박동철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지난 제36회 금산인삼축제 행사 10일내내 구슬땀을 흘려준 자원봉

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양현환 자원봉사센터장은 대회사에서 "자원봉사자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에 대한 참여를 확산시키고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약속했다.

금산=김정환 기자

서산시, 겨울철 주민 안전·생활불편 해소

내 집·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서산시가 겨울철 주민 안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에 앞장서고 있다.

가시특설 시 골목길, 인도 등의 지역까지 제설, 제빙작업에는 행정인력과 장비에 한계가 있기에 시는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는 마을 제설반을 구성하고 지역자율방재단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특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종 회의 시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에 나서는 등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인 제설, 제빙을 추진해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 집,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도로 제설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산=김정환기자

우리/동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공주시, 우량소나무 숲 51ha · 소나무 3만 그루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마곡사, 고마나무 지구 등 51ha의 우량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소나무 3만 그루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를 실시한다.

예방나무 주사는 건전한 소나무의 줄기에 천공기로 적정 구멍을 뚫고 약제를 투입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는 작업으로, 약제를 투입한 소나무는 이후 2년 간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예방나무 주사에 사용되는 약제는 식성 살충효과를 가지고 있는 에마멕틴 벤조에이트 유제(2.15%)로, 이 약제가 투입된 나무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서식하면 약효로 인해 죽게 된다.

김기형 산림보호팀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인근 시군에서 공주시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며, "우량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소나무재선충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주=정상범기자

2016년 GAP우수사례 경연대회

만인산농협 추부갯잎 금상



GAP전국생산자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GAP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만인산농협(조합장 전순구) 추부갯잎이 '금상'을 수상했다.

전국GAP우수사례 경연대회는 GAP인증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해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GAP인증 상품화를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농협을 선정 시상하는 행사다.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만인산농협 GAP추부갯잎은 농협중앙회장 표창(금상)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작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전국GAP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 수상에 이은 쾌거로 명실상부한 GAP갯잎 주산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만인산농협 전순구 조합장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GAP인증제도 활성화에 발맞춰 지역 농민의 소득 향상을 추구하는 각 기관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추부갯잎의 명품화를 위해 GAP인증 농산물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금산=김정환기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 사랑이 오네요 (SBS 오전 8시 30분)



마주한 상호와 대화를 서로를 맞으며 으르렁거리고 증오로 가득 찬 대화는 상호의 가슴에 달린 수감 번호를 보며 비롯어준다. 한편, 민수는 반성의 기회가 없는 상호의 모습에 분노하고 우주는 선영에게 고백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데...

▲ 언제나 봄날 (MBC 오전 7시 50분)

면식(선우재덕)은 태평(김성령)의 수술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현준(박정욱)은 한길의 출생의 비밀을 미끼로 삼아 더욱더 그를 압박하기 시작

한다. 한편, 윤호(권현상)는 인경(강별)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만 가고 헤자(오미연)는 면식과 한길의 이야기를 듣고 마는데...

▲ 저 하늘에 태양이 (KBS2 오전 9시)



인경(윤아정)은 민우(노영학)가 승준(김민호)을 이용해 자신을 속였단 사실에 분노하고 잃어버린 승준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선다. 다급해진 민우는 근태(김규철)에게 승준을 인경보다 먼저 찾아낼 것을 지시한다. 승준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쳐가던 인경은 한 통의 제보전화를 받게 되는데...

케이블 명화

▲ 성난 변호사 (OCN 오후 5시 00분)

두뇌 상위 1%, 승소확률 100%의 에이스 변호사 '변호성'(이성균). 대형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승승장구하는 그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온다. 바로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여대생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를 변호하는 것!

좁혀짐 풀리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의 두뇌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파트너 '박사무장'(임원희)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용의자의 혐의를 벗길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주인공은 나다!"

재판 당일, 사사건건 부딪히는 후배 검사 '진선민'(김고원의) 반론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변호. 언제나 그렇듯 승리를 확인하는 순간! 용의자가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자백한다. 갑작스런 자백에 판사는 뒤바뀌고, 변변은 승소를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함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승소를 확신한 순간, 시작된 반전. 자존심 구간에 이스 변호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다!



▲ 레볼루션러로드 (채널 CGV 오후 10시 00분)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사랑일까? 첫눈에 반한 에이프릴(케이트 윈슬렛)과 프랭크(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뉴욕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교외 지역인 '레볼루션러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에 보금자리를 꾸리게 된 두 사람. 모두가 인정되고 행복해 보이는 길, 레볼루션러로드에서 그들의 사랑과 가정도 평안해 보이지만, 잔잔하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탈출을 원하는 에이프릴과 프랭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파리로 이민을 꿈꾼다.

새로운 삶을 찾게 되는 것에 들뜨고 행복하지만 한 두 사람.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려는 찰나 프랭크는 승진 권유를 받게 된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파리로 가고자 하는 에이프릴, 그리고 현실에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프랭크. 서로를 너무 사랑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두 사람.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프로그램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TJB/SBS, CMB,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개최

제4회 지역사회복지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행사



삼성전자 온양캠퍼스는 지난 4일, 천안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제4회 지역사회복지 오피니언리더 초청 공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뮤지컬 '빨래')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씬 없이 달려온 330여명의 지역사회 복지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12월 5일 지상파 시청률 순위

'남민덕터 김사부' 9회 연속 1위

2013년부터 4년째 지속적으로 문화나눔을 개최하고 있다. 삼성전자인양캠퍼스 온양사회공헌센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신 사회복지종사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2017년도에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자원봉사 및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문대학교, 김제동 초청 특강 열어

지상파, 케이블 TV, DMB, Sky Life 시청률 조사 업체 TNMS가 지난 5일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을 공개했다. 6일 TNMS에 따르면, 지난 5일 지상파 시청률 1위에는 KBS1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가 이름을 올렸다. '빛나라 은수'는 여승은 은수와 여제자 빛나가 거듭되는 인연으로 여러 궤를 이어나가며 그린 좌충우돌 가족 힐링 드라마다. 일일연속극과 아침드라마가 지상파 프로그램 시청률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SBS 월화드라마 '남민덕터 김사부'가 시청률 188%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MBC 월화드라마 '불야성'과 KBS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는 시청률 TOP 20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타인의 고통' 김윤아, 앨범 자켓+뮤비 촬영 이미지 공개

8일 자정 앨범 발표... 신비로우면서 몽환적인 모습 선보여



밴드 자우림 멤버 겸 싱어송라이터 김윤아가 오는 8일 자정에 발표하는 솔로 앨범 정규 4집의 앨범 자켓과 뮤직비디오 촬영 이미지를 자신의 SNS를 통해 6일 공개했다. 공개한 앨범 자켓에서 김윤아는 희미한 초점으로 효과를 취 신비로우면서 몽환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타인의 고통'이라는 강렬한 앨범 타이틀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와 함께 공개한 뮤직비디오 촬영 이미지에서는 그랜드 피아노와 검은 드레스를 입은 김윤아가 깨진 거울을 오브제로, 햇빛이 비치는 공간에서 절묘한 조화를 이뤄 새 앨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윤아는 새 앨범 '타인의 고통'을 오는 8

단독공연을 시작한다.

올해는 tN '시그널'과 영화 <덕혜옹주> OST를 비롯해 4월부터 100일 간격으로 발매한 자작곡 '키리에', '안녕', '유리'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김윤아 라더욱 기대감이 커진다.

소속사 (주)인터파크 측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 "김윤아의 깊어진 세계관을 아름답게 펼쳐놓은 수작이자, 김윤아가 선사하는 최고의 앨범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섬세하고 깊은 감성의 노래들로 채워진 3집의 솔로 앨범을 통해 솔로 아티스트 김윤아의 음악세계를 구축했기에 새 앨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제동은 사전에 6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고민거리를 받아 현장에서 황선조 총장과 총학 생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조언과 답변을 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 느낄 때"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행사가 앞서 입학 예정자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게 될 학교의 교수와 선배들을 만나 학교에 대한 설명과 비전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묻고 답하는 선배와의 만남과 '전공탐방'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산=리량주기자

케이블 & 위성 방송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OCN, MBC Sports, YTN, and others.



건강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랑 나눔 봉사활동 펼쳐 건강사이버대학교(총장김희수) 사회복지학과와 봉사 동아리 '함께자원봉사갈까요?'가 지난 3일 금산군 나눔의집(대표 오지승)에서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폴리텍 대전 취업애로계층 수료식 한국폴리텍V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지난 5일 본관4층 세미나실에서 경력단절여성 사진촬영편집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대학 보직관계자들과 담당학과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특련집단지진과정은 성혜숙을 비롯한 23명이 수료했다.



한미음고등학교 백석대학교와 교육 협력 협정식 한미음고등학교(교장 구자명)는 5일 천안에 위치한 백석대학교(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한정수)와 한미음고등학교에서 교육 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의 밤 행사 성료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회장 김중덕)는 지난 6일 귀농귀촌인 200여명과 관련단체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청양군 귀농귀촌협의회 귀농인의 밤행사를 개최했다.



대전보훈병원 '행복나눔 물품전달' 지난 2일 김정김치와 자체기금으로 마련한 쌀과 과일, 라면을 대덕구에 소재하는 32주막에 전달했다. 조현목 병원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물품 전달행사는 앞으로도 매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 신관동 일등약국 백미 160포기탁 공주시 신관동 일등약국(약사 이은주)은 지난 2일 신관동사무소를 찾아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쌀 160포(10kg, 322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주최, 각 학년별로 경기 치뤄 학교폭력예방 위한 전국유소년축구대회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회장 권오석)에서는 지난 11월 20일과 12월 4일 양일간 서울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의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구기스포츠연맹(회장 김홍주)이었다. 대회의 주최인 사단법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는 전국에 지부와 지회가 구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이다. 대회의 주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구기스포츠연맹은 구기스포츠 단체를 조직화, 체계화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안전한 구기스포츠 보급과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신체적 건강증진, 가족의 화합 문화 조성에 목적을 가진 단체이다.

양일간 서울, 경기, 세종, 충청 등 전국 100개 팀이 취미반과 엘리트반으로 약 3000여명(선수 1000명, 학부모 2,000명)이 참가하여 각 학년별로 경기를 치루었다.

이번 대회는 상호 우정을 나누는 건전한 유소년 스포츠 축제의 장을 마련, 건전한 사회성 함양의 기회 제공과 축구를 통해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 청소년이 대회를



통해 더욱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대회를 통해 즐겁고 재미있는 학교생활을 영위하고 전국의 팀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는 향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아동유괴방지, 학교폭력 및

성범죄예방 교육과 캠페인,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안전교육, 아동청소년 안전지도사 양성, 지역소방서 지원, 소의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지원금 지급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이 대회의 후원은 경찰아동청소년안전협회 제주시지회(회장 이창준), 용인시지회(회장 윤영준), 강동구지회(회장 정수빈), 대전지부(회장 김성구), 안양시지회(회장 박은경), 사천시지회(회장 광범옥), 강원지부(회장 최권섭), 대구지부(회장 주인돈), 안산시지회(회장 정용권), 인천지부(회장 최선호), 양천구지회(회장 표재현), 용산구지회(회장 정은재), 구로구지회(회장 김태원), 중구지회(회장 신현석), 남양주시지회(회장 김경석) 등이다. 김정환기자

## 서산시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송년음악회"



서산시문화회관(관장 한옥희)이 오는 28일 서산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6년 서산시 문화가 있는 날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송년음악회에는 국민가수 '김건모'가 출연해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첫인상 ▲핑계 ▲사랑이 떠나가네 ▲빛속의 여인 등 그동안의 히트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팝&클래식 뮤지컬 스토리' 전국투어 콘서트, JTBC의 '김국진의 현악박치기'에 출연했고 2013년 SBS 연기대상에서 축하 공연한 '카이로'와 오페라 가수이자 ▲영화 '기담' OST ▲대중음악 무사사 CF ▲KBS 열린음악회 등에 참여한 '한아름'이 열연할 예정이다.

아울러 흡사 대형 뮤지컬과 같은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는 뮤지컬합스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색채의 음악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산=김정환기자

## 당진맘카페 회원들 사랑의 내복나눔

당진지역 독거노인 50명에게 내복전달



당진맘카페(대표 임진경)회원들은 지난 5일 당진시노인복지관에서 사랑의 내복 50벌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네이버카페모임 당진맘카페는 2만여 회원으로 구성된 당진의 대표 엄마들의 모임 카페이며 이번 후원 전달식을 위해 약 3주간에 걸쳐 '내복기부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모금된 후원금으로 당진지역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정성이 모여 흑한기를 대비해 50명의 취약계층 독거어르신들에게 내복이 전달되었다.

당진맘카페 임진경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람 있는 후원을 하겠다"며,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환경부장관상 수상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는 6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중부도사기스 '봉사의 날' 행사시행 중부도사기스(대표이사 김병표)는 제8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을 맞아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사랑의 헌혈과 가스 안전교육이행 행사를 가졌다.

## (주)서연이화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서연이화(대표이사 김근식)는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53회 무역의 날에 5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Total 자동차부품 전문회사로서 국내 2개 공장과 해외 16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중앙연구소 외에 해외에 4곳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해외의 진출에 노력한 결과 2015년 서연이화의 매출은 연결기준 2조 2천 9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최고 수준의 인재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서연그룹(유양석 회장)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융복합', '친환경', '평화화' 등의 미래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 SFE Innovation Award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에 9년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3개 분임조가 모두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슬로바키아법인에서는 2014년 국가품질상 최우수상에 이어 2016년 유럽품질경영재단(EFQM)으로부터 5스타를 획득하여 유럽에서도 우수한 품질경영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서연이화 김근식 사장은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강산업장상을 수상했다. 이산=리광주기자



## 목원대, 헨델의 '메시아' 공연 개최

목원대학교(총장 박노래) 음악대학은 12월 13일(화) 오후 7시 대전 문화예술회관에서 헨델의 '메시아' 공연을 연다.

목원대 음대의 헨델의 '메시아' 연주회는 대전지역에 클래식 불모지였던 1971년 초연된 이래 올해로 46년째를 맞는 가장 전통 있는 공연이다. 특히 올해는 개교 62년을 맞아 더욱 성대하게 기획되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베토벤의 합창교향곡과 더불어 송년음악회

에서 가장 많이 연주된 곡 중 하나인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헨델이 오페라 공연에 실패한 후 종교적 감동과 믿음의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1741년 아일랜드 공작 루테난트 경의 의뢰로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불과 3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한 작품이다. '메시아'는 성서를 중심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린 것으로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김태선기자



정일품질검사업소 공주대후원의 집 발전기금 약정 공주대학교(총장김희수)는 지난 5일 대학발전과 지역사회가 서로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일품질검사업소'를 공주 후원의 집으로 선정하고 현판을 부착하는 행사를 가졌다.

기고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1999년 10월 30일 18시 57분경 인천호프집 화재사고. 이 사고는 지하1층 지상 4층인 지하노래방 건물에서 발생한 하다 바닥에 뿌려놓은 신나에 불이 붙어 내부 장식재인 우레탄 등이 소실되면서 유독가스 발생하여 농연과 불길의 계단과 피트를 통하여 2층 라이브 호프집으로 확산되었다. 비상구가 막혀 있어, 사망 56명, 부상 81명 총 1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억조차 하기 싫은 후진국형 화재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2012년 5월에는 부산 부전동 노래방에서 비상구를 불법 개조하고 물건을 쌓아두어 화재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화재사고들은 비상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참사라고 할 수 있다. 비상구와 방화문은 화재 발생 등 위급 상황 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이다. 비상구는 건물에 들어가면 주 출입구와 반대 방향에 설치된 비상 출입구로 화재 등으로 주출입구가 막혔을 때 탈출로로 사용된다. 방화문은 화재 시 직직사를 유발하는 연기를 차단시키고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피난 방화시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구를 '생명의 문'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상구에 대한 우리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3년간(2013~15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 연평균 447건의 시민 신고가 접수되어 연평균 47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비상구나 방화문을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77%로 가장 많았다. 방화문에 말발굽 등을 설치하여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15% 장애물 등을 쌓아두는 행위 4%순으로 나타났다.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히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법 위반행위가 아니라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력을 활용한 현장 점검, 각종 매체를 이용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지하층의 다중이용업소는 건축허가를 받을 때 주 출입구

와 비상계단 등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을 받은 뒤 비상구를 보관물품들로 막아두거나 잠가두는 경우가 흔하다. 낱지가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고 난방이 시작되면서 화재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와 대형매점 등의 비상구와 방화문 등 피난로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위험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서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어서는 안되며, 언제 어디서든지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어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의 방치, 적치와 비상구폐쇄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뤄져 간접 실인행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고 있다. 비상구에 대한 올바른 안전의식과 그 실천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와 물론 업소를 찾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기고

면제재산



이종현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Q)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A)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을 당시 가지는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는 파산채권자들에게 환기하여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중 일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되어 채무자가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면제재산에는 2가지가 있는데, 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② 6월간의 생계비가 그것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가 보장되는 소액임차보증금과 그 금액이 동일할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제재산인 임차보증금 ▲서울 3,400만원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세종, 안산, 용인, 김

포, 광주 2,000만원 ▲기타 1,700만원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예컨대 서울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이 초과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 우선변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3,4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간의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는 최대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면제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면제재산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신청 시기에는 제한이 있는데, 늦어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파산선고 이전에 면제재산 신청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비록 면제재산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재산 신청을 한 채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무상은 재산환가 과정에서 면제재산의 취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재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문의 : 법률사무소 지혜 변호사 이종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806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6-3155(민사, 형사, 가사 등) 대표번호 1522-3339(파산, 회생, 면책)>

사설

살생물제 출시 강화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 살생물제 출시도 까다로워진다. 살생물제 출시 업체는 승인 받은 살생물제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든 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가슴기살균제 사태,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내 살생물제 옥틸이소티아졸론(OT) 방출 등으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환경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는 생활화학제품 성분 전수조사에 나선다. 올해 안으로 위해우려제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향제 등 15종 전체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동액

등 87종 중습기제거제, 부동액, 양초 같이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큰 제품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학물질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비관리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연내 수립해 내년 상반기까지 생활화학제품 2만개 이상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유통 현장에서 바로 퇴출 조치하고, 퇴출 대상 제품목록과 위해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 기관, 소비자단체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스프레이형, 대량 유통제품을 중심으로 제품 안전성을 조사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제품은 온·오프라인 마켓에서 퇴출하고,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생활화학제품의 출시에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의약품 심사정보 공개 바람직

그동안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알기 어려웠던 의약품 및 의료기기 허가 심사 정보가 공개된다는 다행으로 여긴다. 순문기 식약처장은 최근 "보고서 공개는 식품·화장품·의약품·의료기기의 안전수준을 바로 알 수 있게 해 과학적이고 예측가능한 식의약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정보를 통해 국민은 식품·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업체는 제품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계획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심사 보고서는 2016년 7월 이후 허가된 신약에 대해 전문 공개를 추진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공개되는 품목은 2개가 계획돼 있다. 공개되는 2개 품목은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 치료제 '임벤스'와 길리어드사이언스스코리아의 HIV 치료제 '젠보야'다. 의약품의 허가·심사 정보는 이미 2009년부터

시작돼 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료제공목록과 안전성·유효성 검토 요약표만 공개돼 자세한 정보를 알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2014년부터는 허가조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포함한 허가보고서를 추가로 공개했다. 반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의약품의 허가·심사정보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에는 심사자의 검토에 대한 자세한 의견이나 판단까지 낱말이 공개돼 심사자나 기업 모두 향후 허가심사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식약처는 향후 개량신약, 회귀의약품, 자료제출의약품 등으로 허가·심사 보고서 전문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의 정보 공개로 국내 제약업체의 제품 개발 활성화와 안전 관리,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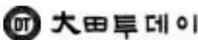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소사

Table with 3 columns: Date, Title, Content. Includes dates like 12/7 and 12/8.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2006년 5월 17일 창간  
젊은생각·비린신문

Table with 5 columns: Role, Name, Contact Info. Includes roles like 발행·편집인, 회장, 편집국장, and contact numbers.

Advertisement for 'MODERN TRADITIONAL HOUSES' featuring images of houses and text describing their features like '1 원형정적 아름다움' and '3 정통적인 아름다움'.

상담문의 041-736-7200  
학교 조형물 리모델링(보수, 도색)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ki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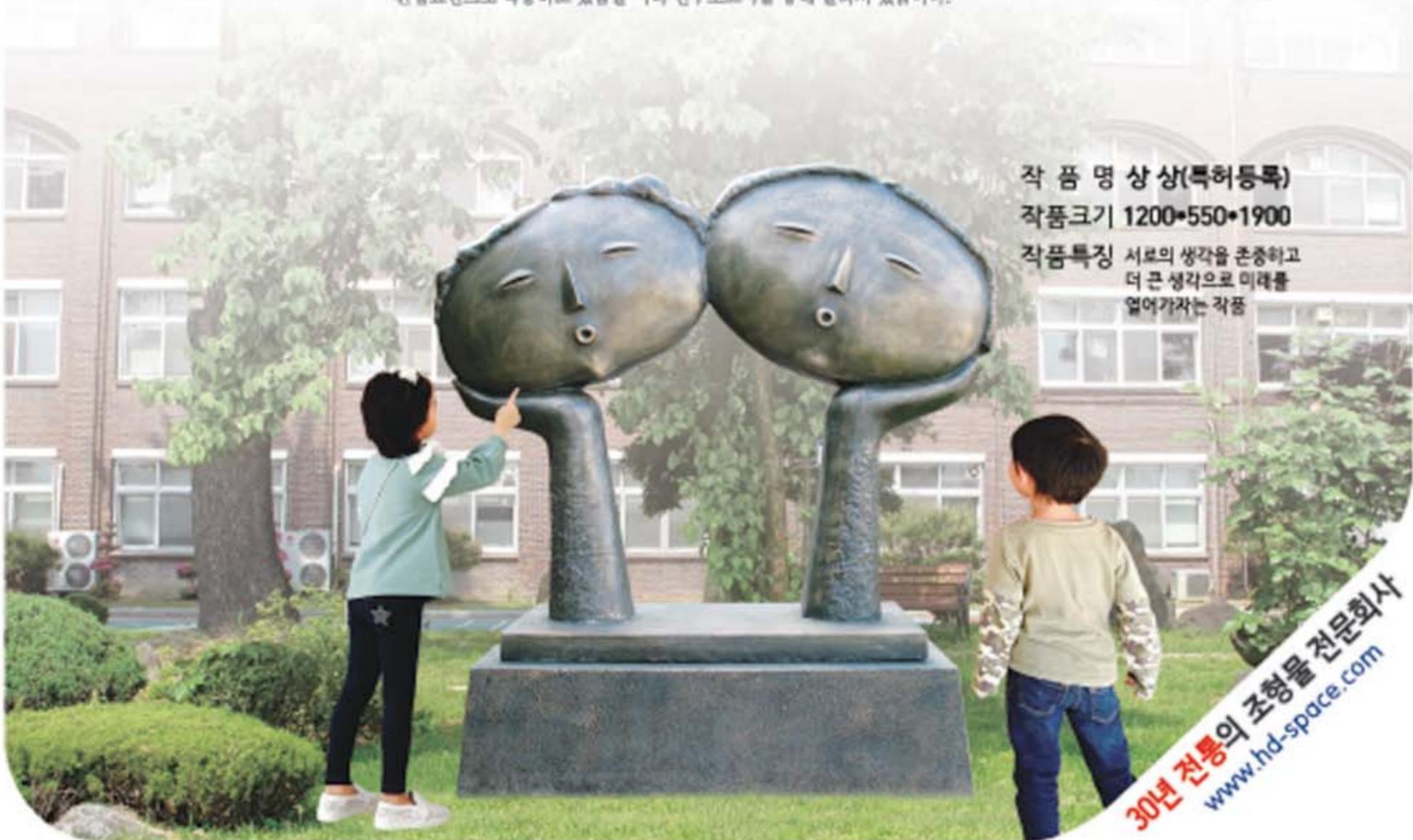
KIBO  
벤처기업인증

All children are artists. The problem is how to remain an artist once he grows up, Pablo Picasso

# 더 큰 생각을 하다!

스승 존경과 제자 사랑으로 넘치는 사제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공간 - 학교

학교에 설치되는 환경조형물은 아이들의 생각을 실내공간에서 벗어나 실외공간으로 확대하여 자연공간과의 친화성을 높이고 미적 감수성, 창조성, 정서성을 배울 수 있으며 보다 넓게 인간과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아실현과 협동 봉사 하는 태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물의 설치는 폭 넓은 생각과 시각적 재미를 경험하게 되고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긍정적인 성격형성과 지적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학습의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작 품 명 상 상(특허등록)

작품크기 1200\*550\*1900

작품특징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큰 생각으로 미래를 열어가자는 작품

30년 전통의 조형물 전문회사  
www.hd-space.com

학교조형물 리모델링

I LOVE  
**Artschool**  
Environmental sculpture

국내 유일 학교조형물 전문회사 (주)현대공간조형이 사랑으로 만듭니다

- 30년 역사와 전통의 환경조형물 전문업체의 품격
- 새로운 공법, 특허 제작공법으로 경제적인 부담 최소화
- 최고의 작가, 최고의 작품의 예술성이 높은 조형물
- 안전하고 반영구적인 조형물

- |        |                |           |      |
|--------|----------------|-----------|------|
| 도원초등학교 | 북부초, 서일초, 한림초  | 연봉초등학교    | 사제상  |
| 간암초등학교 | 거제중앙           | 월명초등학교    | 동상   |
| 도암초등학교 | 동상             | 속초삼다리 유치원 | 사제상  |
| 나해초등학교 | 서해남            | 서성초등학교    | 거제하상 |
| 서명초등학교 | 서해남, 가취남초, 가취남 |           |      |

조형물 / 조형사업 전문기업 인증  
**(주)현대공간조형**

조형물 전문상담  
**041.733.9558**

www.hd-space.com